

등록금 협상 진통... '공청회' 고비될 듯

예결산 공개요구에 학교서 '공정적' 2차등록 23일 마감- 고지서 반납 교수로 대립

91학년도 등록금이 학교당국에 의해 18%인상 고지된 것에 반발, 학생회측의 고지서반납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학생회는 오는 21일 "등록금협상을 위한 재단·학교당국·학생대표 공청회"를 개최, 등록금을 포함한 학내제반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학교당국은 지난 16일까지의 1차등록 기간에 63%의 등록금을 보이고 있어 오는 23일까지 등록연기를 해두고 있다.

생기준 등록금인상 철회와 학내제반 문제 등을 등록금등록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생복지요구안에 대한 심의는 총장실정등을 이유로 다음 협상으로 연기됐으며, 민병철 총장은 "앞으로 등록금협상에서 총장의 권한을 부총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밝혀 견성 부총장이 등록금협상의 학교측 최고책임자로 인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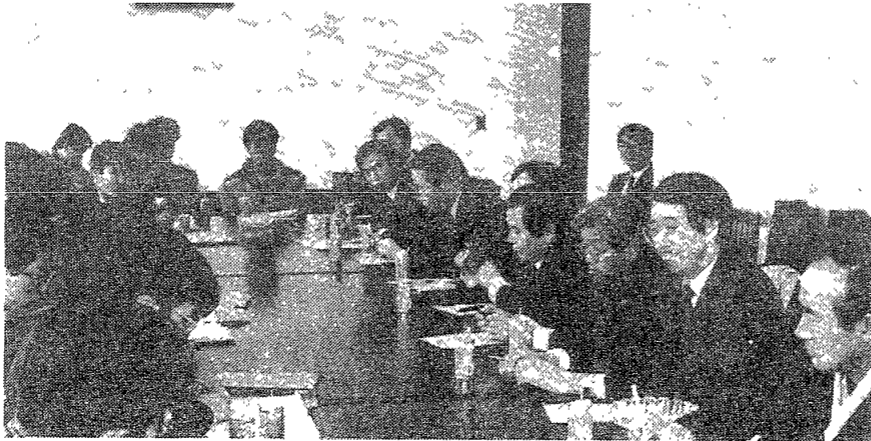
지난 18일 학내장회실에서 총장, 3차2실장, 학장과 단대장 등 총학생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단대복지요구안 설명과 예산안공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회측은 예산안출근거의 완전공개, 예산·학교대표가 참석한 협상 테이블 마련을 통한 학내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복지요구안의 학교측 수용정도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학교당국은 "교육부가 승인한 예산서는 기초실정 일회하여 열람이 가능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질문까지 답변하겠다"고 밝히며 예산내역 공개를 약속했다.

"기밀적 등록금인상철회와 등록금등록을 위한 91학자투진 군칙"이 지난14일 오후1시 학

생 1천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에서 열렸다.



◇지난 18일 총장등 학교행정 책임자와 총학생회측은 학생복지요구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학교당국은 기초실정 일회하여 예산안 열람을 약속했다.

이날 협상에서 학자투진위원장 이우용(무역4)군은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내역 공개 실현을 위한 협상을 약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학자투진위원장 이우용(무역4)군은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내역 공개 실현을 위한 협상을 약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학자투진위원장 이우용(무역4)군은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내역 공개 실현을 위한 협상을 약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학자투진위원장 이우용(무역4)군은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내역 공개 실현을 위한 협상을 약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학자투진위원장 이우용(무역4)군은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내역 공개 실현을 위한 협상을 약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학자투진위원장 이우용(무역4)군은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내역 공개 실현을 위한 협상을 약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학자투진위원장 이우용(무역4)군은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내역 공개 실현을 위한 협상을 약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학자투진위원장 이우용(무역4)군은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내역 공개 실현을 위한 협상을 약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학자투진위원장 이우용(무역4)군은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내역 공개 실현을 위한 협상을 약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병원 10월에 개원 가능할 듯

전동국인 적극적 관심 보여야

경주병원 개원이 작년 11월 15일자로 병원개설허가를 받은 후 조정비등의 이유로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채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현재 개원준비에 시일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장비는 방사선과 장비중 X-ray 및 CT(컴퓨터 단층촬영기)로서 발주후 최소한 4~5개월이 필요하고 설치 및 시험가동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최소한 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개원예정일은 "빨라야 10월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주의료원측은 예상하고 있다.

6개월동안 별도예산확보가 필요하고, 둘째 의료계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요구되므로 의사및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경주의료원측은 밝혔다. 또한 경주의료원측은 "전동국인이 유일한 중립종합대학 및 불교종합병원으로서 자긍심과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동국인의 관심을 호소했다.

경주부총장 직선 '주목'

총장 이사장의 부총장 선임 의사 표명과 지난 12일 열린 경주캠퍼스 교수총회(회장=김

'전민학련' 사건 심리공판

박세환군 등 공소사실 전면부인

방중 학원단체가 어느때보다도 심했던 지난해에 '전민학련' 관련 구속기소된 한중서(전 중학 사회부장 전기86)의 3명의 첫 심리공판이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523호)에서 열렸다.

피의자 진술과 검사측 심문 과정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구속자 박세환(국판87)군은 "노태우대통령이 복안을 21세기를 함께 창조하는 동반자로 규정할 7.7선언'과도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부정했다. 또한 이날 방중자 이광직(전 786)군 등 3명의 학생은 구호와 노래등을 불러 구유치문을 받았다.

빠른 시일안에 교수총회 소집결의

교수대의원에 민태진 교수등 6명 추가

교수회편성과 방안은 논의가 위한 '교수회 제9차 대의원회의'가 지난4일 오후4시30분 대의원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회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회편성과 방안으로 단파대 교수회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회를 결성하고 앞으로 학내현안문제

에 대해 교수회 대의원회는 학교수에 △유보근거의 명확한 해명 △그동안의 유보경유 해명 △황교수유보에 대한 총장의 대해 설명등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지난18일 오후 총장에 3가지 요구안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평교원은 재임유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 해명을 요구하며 학내현안문제에 대한 교수총회소집을 계획 중이다.

복교 대책위원회 활동본격

신분 인정·수업참여요구

시국관련등 총12명의 학생이 복교희망을 신청한 가운데 복교 대책위원회인인건사업부는 지난 13·15일 김진제 교수처장과 면담을 갖고 복교학생으로서의 신분인정,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에 따른 수업참가 등 2가지요구를 제시했다.

이런 면담에서 김교무처장은 "근본적 문제는 대통령령에 의

한 번 특별법제정밖에 없으며 학교에서 해결수 있다"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교대책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3시 김교무처장과 3차 면담을 갖고 학교당국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변수

최근에 우리들은 인간의 도덕성과 사회의 정의를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각종의 극악한 살인, 유괴, 납치, 강도, 폭력등의 죄악의 범람과 부정입학, 부정유학 투기, 뇌물수수, 부정특혜분양 등 사회적인 초범과 행위들의 보도가 뉴스를 장식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그럴수 있는가고 통탄한다. 사실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조건은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저열한 악행을 저지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격(人格)이다. 칸트는 늘 일찍이 사람은 누구도 스

아무도 어길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천령이요 나침반이다. 인간은 본능적 존재이면서도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또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면서 무한으로 향하는 형이상학적 존재이다.

당시에 풍포와 인류전체의 상호보존과 구제에 협력하는

라고 하는것이 개인적 이기주의는 말할것도 없거나 사회나 집단을 이기적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와는 인간이 그 사회에 의하여 소외 당하게 되며,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상실하여 곧 자기소외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격은 상실되고 양심의 척도는 붕괴되어 비인격적인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게 된다. 도덕성과 정의의 척도인 인격의 보존만이 모든 악과 불의를 추방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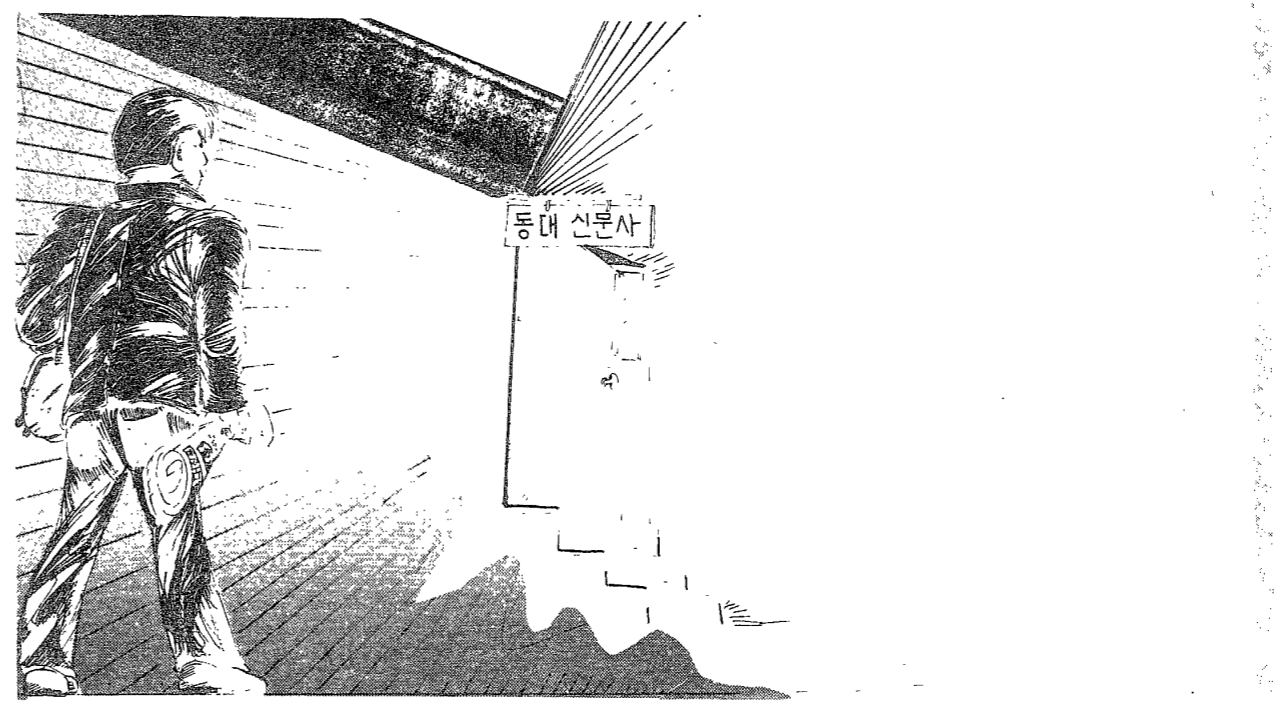
金 鑰 貞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광고

도전이 두려우면 오지 마십시오

꿈광고 열기왕성한 새내기들 찾고 있습니다. 후시라도 대학생활의 낭만을 찾아 아직도 방황하는 새내기들 없습니까. 대학생활의 모든 것을 동대신문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서 달려 오십시오.

단, 자기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기자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기자도 많습니니다. 투철한 자기전망만이 힘든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산처럼 다가오는 고난과 고민을 깨뜨리는 과정속에서 자신을 발전시킬 신념에 찬 새기기를 기다립니다. 도전이 두려우면 오지 마십시오.



-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명
- ◇응시자격: 1학년 남녀재학생
- ◇모집분야: 일반 및 만화·컷·사진기자
-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서울 3월28일 오후4시까지, 경주 3월21일 오후4시까지
- ◇시험일자: 서울 3월28일 오후5시, 경주 3월21일 오후5시
- ◇시험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시험장소: 학림관 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동대신문사

사실

교수채용과정 공개로 의혹 풀어야

매년 교수채용이 연대투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한파의 문제만으로 그쳐 제도에 지적되어 온 것이 지난해 발표, 일문, 경제과 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근본적인 치유책이 없으면 되풀이되는 일점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

당국과 재단은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교수채용 과정에서 생긴 의혹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전과정을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참여없는 지자체선거는 무의미

지방자치 기초의회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6공 최대비리인 수사사건을 은폐하고 오는 6월의 평역의회를 겨냥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정무부여당과 가톨릭 '정보기관'의 책략으로 유착할까 걱정하는 차가운 선거판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선거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야당들도 당초 기초선거를 앞당긴 의도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고 먹고살아 넘기 위해 타협한 것에 대해 단호히 비판해야 할 것이다.



아이고 힘들다 하/하/하/

시시·논단

이덕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연구소간사>

30여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제 선거가 과연 커닝 아주 빽빽하게 치러질 것 같다. 이는, 첫째로 국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여당의 공명선거를 빙자한 공표분위 조성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선거와 민생경제

지자체,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 뿐

같은 기간동안 임금상승분이 2월16만 원이었으며, 세입 노동자가 이를 모두 저축한다면 2월14만 원만 남는다. 이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동문칼럼

황헌 <문화방송 정치부기자>

지금 우리는 혼돈의 세계에 살고 있다. 눈물 부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제대로 질서를 갖춘 모습은 한 군데도 찾을 수 없다.

자기혁명의 기운으로 동학을 되살리자

한편 팔에 "이번에 모교가 대학이후를 먹었나?" "동국의 동원이 서울 어디에 생겼나?" 등의 얘기가 나오면 우리들의 화려했던 눈동자 속에서 조급한 생기가 엿보이기 시작한다.

목석골

영자신문 수습기자 모집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대학원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나갈 수습기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1. 모집부문: 일반기자 ○명 만화(cartoon)기자 ○명

동학 광장

황천처럼 모여라 / 양정인이여 은혜로 열린 기쁨을 함께 나누어 줘
3월 22일(수) 오후 5시 다문화관에서 성대하게 개최 예정인 동학 광장은, 재학생들은 적어도 5천명 이상 참가하여 필히 참석하시요! '새내기'들은 이번엔 참석하지 않으면 동학의 명부에 오르지 못하여 결국 출세에 지장이 생길(?)지도 모르니 알아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편, 4월14일은 27기 신성원 영아가 학교에서 결혼이런 한대니가 모든 동문을 알아두시길!
-재 동대 양정동문회장-

온방골

화요특강(꽃꽂이 강습)의 회원모집안내
다음과 같이 꽃꽂이 회원 모집합니다.
제목: 꽃꽂이 강습(1학기동안 주1회)
대상: 관심있는 재학생
조건: 수강료 무료 연락처: 여학생감실(학생회관3층·교내전화:236)
오늘(20일) 내일(21일) 고전연구회 '발매'에서 탈출강습회를 연다. 재학생보다 신입생이 많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학생회관 2층 전실에서 5시부터 시작합니다.
신입생도 모집합니다.
제8대 민중민주 총학생회는 총학생회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재학생여러분을 대상으로 '신문제'를 모집합니다. 27일까지 응모하신 후 당선된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아울러 총학생회 안에 있는 '독자의 소리' 원고(연고지 3-4매)를 모집합니다. 온방골 학우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총학생회 학술부-

기획 연재 올바른 대학생활을 위한 제언

민족자주 유린한 분단의 근원

글 쓰는 차례

1. 삶의 나침반 철학
2. 사회현실을 바로알자
3.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4. 또 하나의 조국, 북한에 대하여

“지난 86년 3월5일 충북 제천군 봉양면 봉양국민학교에서 근무하던 이모교사는 어느 때와 같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이었다. 이때 틸스퍼트홀을 한답시고 마을에 들어와 집을 찍찍 씹어대며 논이 밟이며 가리지 않고 땀을 흘리며 걷는 등 인허무인적으로 살고 다니는 5-6명은 이모교사를 납치하여 근처 야산으로 끌고간후 무참하게 집단학살하여 농락하였다. 이때 이모교사는 임신6개월로 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고 그후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노동자신문” 서면 86. 4. 23일자)

이 사건에 대해 주한 미대사관은 86년 5월20일 “간간사건과 관련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일부 한국인들이 믿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무근임을 애써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사실임이 교외기관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는 곧 평화신문(88. 7.24)에 다시 보도되었다.

또한 88년 10월16일 이태원에서는 택시를 탄 미군에게 택시비를 요구한 택시기사가 미군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과 미군사이에 집단난투극이 벌어졌는데 현장을 출동한 홍순우 용산경찰서장은 가해자인 미군3명을 체포하기보다는 미군행동에 항의하는 1천여명의 시민들을 강제해산시키는데 신경을 쓰입었다. 미군에게 일어났고, 실상가상으로 한국경찰의 폭행으로 일곱몇에 상처를 입고 옷이 찢긴 수많은 시민들은 현장지위를 하던 홍순우 서장에게 물러가 “당신들이 한국경찰이나, 미국경찰이나”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두사태는 더이상 미군범죄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보도 분절적이고 근본적인 결투의 차원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면 45년 미국이 남한에 진주한 이래로 미군에 의해 수많은 학살과 강간살인사건으로 죽어간 수백, 수천명의 억울한 시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4조를 보면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와 그근처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하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는 굴욕적으로 체결된 1904년의 ‘항일의정서’에 명시됐던 ‘영토주권의 포기’와 내용상 아무런 차이도 없는 치욕적인 것으로 어느때나 미국의

경제적 종속의 현실

“내가 게임중 CIA해의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것은 5-16혁명이었다.……만일 미국이 부인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중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현혹되어 남북통일을 요구하는 폭도들을 지원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또한 87년 6월월경이 절정에 달했던 6월28일 미국부장관 슐츠는 NBC-TV에 나와 “한국정부는 중앙문제에 관한 입장을 바꿔 지금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장기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라고 발표했으며 바로 다음날 이른바 6·29선언이 나왔다. 그리

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경제·군사등 한국의 주권을 짓밟고 있는 미국에 대해 새대기들은 민족자주성을 세우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진은 89년 10월13일 서울련 소속 6명의 학생이 미대사관서 점거물을 발인후 연행되는 모습.



모든 군사적 권한을 넘겨주고 그것도 모라랐는지 민족의 생존이 달려있는 핵무기의 배치와 처리, 그리고 통일문제까지도 미국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가 88년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9억6백만달러(약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한국인이 내는 전기요금의 43%만 내고, 휘발유는 4분의 1가격으로 산다. 도로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도 붙지 않는다.

미군에 대한 이러한 특혜는 결국 국민의 고혈을 짜낸 세금으로 미군 1인당 1년에 약 2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쥐어주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방위비분담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

각종 정치개입과 조종

1964년 영국BBC방송에 출연한 알렌 펠레스 전 미국 CIA장관은 한국인에게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

“내가 게임중 CIA해의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것은 5-16혁명이었다.……만일 미국이 부인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중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현혹되어 남북통일을 요구하는 폭도들을 지원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또한 87년 6월월경이 절정에 달했던 6월28일 미국부장관 슐츠는 NBC-TV에 나와 “한국정부는 중앙문제에 관한 입장을 바꿔 지금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장기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라고 발표했으며 바로 다음날 이른바 6·29선언이 나왔다. 그리

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경제·군사등 한국의 주권을 짓밟고 있는 미국에 대해 새대기들은 민족자주성을 세우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진은 89년 10월13일 서울련 소속 6명의 학생이 미대사관서 점거물을 발인후 연행되는 모습.

모든 군사적 권한을 넘겨주고 그것도 모라랐는지 민족의 생존이 달려있는 핵무기의 배치와 처리, 그리고 통일문제까지도 미국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가 88년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9억6백만달러(약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한국인이 내는 전기요금의 43%만 내고, 휘발유는 4분의 1가격으로 산다. 도로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도 붙지 않는다.

미군에 대한 이러한 특혜는 결국 국민의 고혈을 짜낸 세금으로 미군 1인당 1년에 약 2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쥐어주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방위비분담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

대학원 학술모임 ‘인사련’을 돌아본다

지난89년 5월 ‘동국학동 그 반성과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라는 기치 아래 창립된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회(이하 인사련)는 올해로 3년째 접어들며 지금까지3회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을뿐 연구활동이 호지부지한 상태여서 일반학우대중과 젊은 연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거의 유명무실적으로 전락되었다.

학술연구모임성격의 인사련의 창립목적이 우리나라의 역사·철학·종교·문학·예술·정치·경제·사회등 제반문제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하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사회현실에 근거한 ‘실사구시’ 정신의 실천적 지식인의 상을 확립하여 우리민족이 처한 현실의 참모습을 밝히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었다.

지금 우리대학의 현실이 교수의 몫이 아니라 참다운 스승이 드물고 연구실은 적지않지만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련이란 연구모임을 통해 기존에 비해친 고품질연구와 전공중심의 개별적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련의 창립을 목적으로 하되 인문의 지평을 확대하여 우리사회의 인류 전반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건강한 연구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사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로 인사련이란 연구모임을 통해 기존에 비해친 고품질연구와 전공중심의 개별적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련의 창립을 목적으로 하되 인문의 지평을 확대하여 우리사회의 인류 전반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건강한 연구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91 단체협약안 쟁점

4.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단협의 많은 부분이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최근 날카롭게 대립되고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 조합간부의 활동시간과 교육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조합원들이 원상태에 있는 작업시간의 조합활동이 정지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정부와 자본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의 합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전 동의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1)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조합원의 근무중 조합활동은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하고 조합활동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키고 2)근무시간중 노조가 임원행위나 가입원서 등 유인물배포를 금지시키고 3)근무시

유가 다분히 존재하였기때문에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조직내부에 포함된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된다.

여기서 인사련이 침체될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짚어보고 이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조직의 연구활동결과를 추적해내고, 동국의 새로운 학풍수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회칙상 명시되어있다. 그런데도 조직의 구성원들은 실패하면 회칙의 회원규정과는 상관없이 세력확장만을 염두해 두고, 그들의 연구방향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회원으로 무분별하게 가입시

각각 회원들에게 미치지 못했다. 이점은 위로부터의 하향식 조직방향을 취했기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각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을 제도적인 장치의 부재와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수용할 출판물의 부재 등의 여러원인도 존재한다.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는 인사련이 최소한의 수준에서부터 부활될 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조직의 방향을 축소하여 인사련활동에 관심을 갖는 소수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기존의 인사련 운영방식차원에서 각 분과체계를 제정해내고 각 회원이 각자의 전공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세력확장만을 염두해 두고, 그들의 연구방향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회원으로 무분별하게 가입시

창립3년... 연구활동부진 학풍쇄신 역할 수행돼야

창립 3년째 접어들며 지금까지3회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을뿐 연구활동이 호지부지한 상태여서 일반학우대중과 젊은 연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거의 유명무실적으로 전락되었다.

학술연구모임성격의 인사련의 창립목적이 우리나라의 역사·철학·종교·문학·예술·정치·경제·사회등 제반문제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하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사회현실에 근거한 ‘실사구시’ 정신의 실천적 지식인의 상을 확립하여 우리민족이 처한 현실의 참모습을 밝히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었다.

지금 우리대학의 현실이 교수의 몫이 아니라 참다운 스승이 드물고 연구실은 적지않지만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련이란 연구모임을 통해 기존에 비해친 고품질연구와 전공중심의 개별적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련의 창립을 목적으로 하되 인문의 지평을 확대하여 우리사회의 인류 전반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건강한 연구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사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로 인사련이란 연구모임을 통해 기존에 비해친 고품질연구와 전공중심의 개별적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련의 창립을 목적으로 하되 인문의 지평을 확대하여 우리사회의 인류 전반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건강한 연구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동인지형식의 회칙을 창간해 내고 동인지는 이후 정식 학술논문집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회원들의 학습을 최소한도로 보장해 주는 동시에 인사련의 연구활동과 맞물려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셋째, 축적된 성과를 세기나, 좌담회 등을 통해 발표하도록 각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회원상호간에 공유시켜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사련은 자체내 품고있는 한계와 오류점을 시급히 해결하고 미흡한 수준이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술연구활동의 중심을 맡고 있는 대학원 체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본교의 학풍의 쇄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인환 기자)

이 각 회원들에게 미치지 못했다. 이점은 위로부터의 하향식 조직방향을 취했기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각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을 제도적인 장치의 부재와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수용할 출판물의 부재 등의 여러원인도 존재한다.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는 인사련이 최소한의 수준에서부터 부활될 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조직의 방향을 축소하여 인사련활동에 관심을 갖는 소수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기존의 인사련 운영방식차원에서 각 분과체계를 제정해내고 각 회원이 각자의 전공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세력확장만을 염두해 두고, 그들의 연구방향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회원으로 무분별하게 가입시

창립3년... 연구활동부진 학풍쇄신 역할 수행돼야

창립 3년째 접어들며 지금까지3회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을뿐 연구활동이 호지부지한 상태여서 일반학우대중과 젊은 연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거의 유명무실적으로 전락되었다.

학술연구모임성격의 인사련의 창립목적이 우리나라의 역사·철학·종교·문학·예술·정치·경제·사회등 제반문제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하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사회현실에 근거한 ‘실사구시’ 정신의 실천적 지식인의 상을 확립하여 우리민족이 처한 현실의 참모습을 밝히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었다.

지금 우리대학의 현실이 교수의 몫이 아니라 참다운 스승이 드물고 연구실은 적지않지만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련이란 연구모임을 통해 기존에 비해친 고품질연구와 전공중심의 개별적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련의 창립을 목적으로 하되 인문의 지평을 확대하여 우리사회의 인류 전반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건강한 연구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사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로 인사련이란 연구모임을 통해 기존에 비해친 고품질연구와 전공중심의 개별적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련의 창립을 목적으로 하되 인문의 지평을 확대하여 우리사회의 인류 전반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건강한 연구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동인지형식의 회칙을 창간해 내고 동인지는 이후 정식 학술논문집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회원들의 학습을 최소한도로 보장해 주는 동시에 인사련의 연구활동과 맞물려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셋째, 축적된 성과를 세기나, 좌담회 등을 통해 발표하도록 각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회원상호간에 공유시켜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사련은 자체내 품고있는 한계와 오류점을 시급히 해결하고 미흡한 수준이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술연구활동의 중심을 맡고 있는 대학원 체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본교의 학풍의 쇄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인환 기자)

대회등도 근무의 시간에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장실업 노조에서는 교섭결과 유급 조합활동시간이 주48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었으며 영등포지구의 광명전차노조에서도 요근 조합활동은 근무의 시간에 할것을 요구받았다.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부정은 근무시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로 퇴근후를 기다려서 대화를 세울 경우 이미 시기를 놓쳐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크며, 회사에서 약속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에

근무중 조합활동, ‘무노동무임금’ 적용

노조의 자주성·안정성 확보돼야

육에 대해 회사측에서 강사선정등에 대해 간섭하거나 노조가 임원유를 못하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해,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노동조합법 제39조 4호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실제로 구로공단의 KDK노조에서는 유급 조합활동시간을 주 24시간에서 근무의 시간에 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의 총회, 대의원

대회 등도 근무의 시간에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장실업 노조에서는 교섭결과 유급 조합활동시간이 주48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었으며 영등포지구의 광명전차노조에서도 요근 조합활동은 근무의 시간에 할것을 요구받았다.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부정은 근무시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로 퇴근후를 기다려서 대화를 세울 경우 이미 시기를 놓쳐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크며, 회사에서 약속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에

등록기간 연장안내

1991학년도 제1기분 학부 재학생 등록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마감)합니다.

- 1.남부지역 1991년 3월18일 (월)~3월23일 (토)까지
- 2.남부처

구분	남부처	대상 학생
공 통	조용은행 동국대출장소 및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전산처리된 고지서를 소지한 학생(전산으로 감액처리된 고지서 포함)
서울 캠퍼스	조용은행 동국대출장소 및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①장학금 수혜자로서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등록금 고지서와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함께 남부처에 제출) ②복학생 및 재입학생
경주 캠퍼스	경주캠퍼스 경리과	

- 3.기 타
 - ①등록금 고지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송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지정남부처에 남부처하지 않을시 등록무효로 학적이 상실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문의사항은 서울 및 경주캠퍼스 경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1991년 3월

총무처장

성명서

마침내 12대 총장이 선출되었다. 지난 '89년 여름, 노동조합은 직원들이 바라는 총장상을 제시하고 학교의 한 주체로서 직원의 총장선출 참여를 표방하였다. “총장은 학교 행정의 수반이다.”라는 명제는 우리들의 총장 선출 참여에 대한 당위성에 다름없다. 그러나 임시파동의 혼란과 서리체제의 질곡에서 노조는 직원의 다양한 견해차이를 우리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안정과 파행행정의 우선 중시’이라는 대의에 좌우된 총장선출 참여를 포기하면서 교수회의 총장 직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교수회 및 총장선거 대표들과의 많은 논의의 자리들은 그 결과의 성패를 떠나 매우 값진 경험이었음에 틀림없으며, 그 바탕에는 대학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수사회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신뢰와 기대가 서려 있었음을 밝혀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처한 위기를 오히려 임지구축의 호기인양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벌인 일부 인사가 유력한 총장후보로 회자되면서 우리들의 신뢰와 기대가 상당부분 훼손되었음을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지난 1년간의 서리 체제에서 나타난 파행 행정에 상당한 책임을 지어야 할 재단이 사립학교법의 비호아래 총장 선출권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학교행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내주체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의 태도는 대학의 자주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재우기 이전 신입 총장의 선출과정에서 재단 이사들간의 반목이 노골화 되었다는 소문에 미하여 우리는 그 진위여부를 떠나 탄식을 금치 못하며 그것이 학교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민방위 편성 제외자 신고

민방위 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학생민방위 편성 제외자 신고를 받고 있으니 해당 학생은 착오없이 바랍니다.

- 1.신고대상: '91학년도 신입생 남학생 중 20세 이상인 학생 (1971년 이전 출생자, 예비역 제외)

동국발전 공청회 개최안내

동국발전을 위해 등록금문제, 복지문제를 비롯한 제반 학내문제를 안건으로 재단, 학교당국, 학생대표 등 계층제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85년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1천만 불자를 포용하고 있는 불교 조계종 산하 재단이 동국대에 버티고 있는 불교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지 못하는 동국대의 현실에서 동국대의 위상정립에 깊은 뜻을 품고 계시는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공청회 명의: '동국발전을 위한 재단·학교당국·학생대표 공청회'
- 공청회 일시: 1991년 3월21일(목) 오후1시
- 공청회 장소: 도서관 앞 (우천시 중강당)
- 공청회 안건: ①등록금문제, 복지문제를 비롯한 제반 학내문제에 대하여 ②총학생회 요구안에 대한 재추체들의 공식입장 발표.

동국대학교노동조합

- 2.신고기간: 3월18일~3월25일
 - 3.신고장소: 장 학 과
 - 4.신고방법: 장학과에 비치된서식에 의거
- ※위 신고 기간중 누락되는 지역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거주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처장

동국발전 공청회 개최안내

동국발전을 위해 등록금문제, 복지문제를 비롯한 제반 학내문제를 안건으로 재단, 학교당국, 학생대표 등 계층제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85년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1천만 불자를 포용하고 있는 불교 조계종 산하 재단이 동국대에 버티고 있는 불교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지 못하는 동국대의 현실에서 동국대의 위상정립에 깊은 뜻을 품고 계시는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공청회 명의: '동국발전을 위한 재단·학교당국·학생대표 공청회'
- 공청회 일시: 1991년 3월21일(목) 오후1시
- 공청회 장소: 도서관 앞 (우천시 중강당)
- 공청회 안건: ①등록금문제, 복지문제를 비롯한 제반 학내문제에 대하여 ②총학생회 요구안에 대한 재추체들의 공식입장 발표.

동국대학교노동조합

- 2.신고기간: 3월18일~3월25일
 - 3.신고장소: 장 학 과
 - 4.신고방법: 장학과에 비치된서식에 의거
- ※위 신고 기간중 누락되는 지역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거주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처장

동국대학교 제23대 총학생회

올해 첫 농민대회를 앞두고

국민의료보험법 90-91 추경 추수매를 요구하는 91년 '제1차 전국 농민대회'가 오는 23일 12시 전라남도 광주시 조선대학교 노천강에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전농의장=전총대)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전남연맹에서 주관하여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인 이번 대회는 제1부 식문화행사, 제2부 전농의장 인사발령, 현 추수매 현황보고 등을 내용으로 한 제2부, 평화대행진 등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3월중순이던 한해 농사준비를 바쁘고 더구나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유세기간중에 1차 농민대회를 준비하게된 이유에 대해 전총총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마니당 13만5천7백여원, 통일벼는 12만7천7백여원이라고도 돼야 된다고 하는 수매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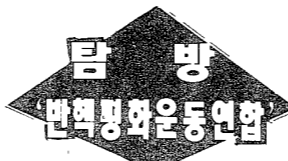
정부측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저가가 저수매는 한·미 쌍무협정에 따라 전면적인 농산물 개방을 전제로 한 '농어촌 종합 발전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 추정된다. 농어촌발전대책의 주요골자는 미국과 같이 대규모·전문적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만 남고 소작농이나 소규모의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인근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노동자로 취직시키는 것이다. 농어촌 발전대책에 대해 농민회 사람들은 "지금까지 농사일이 전직인을 알고있던 사람들이 무수일을 하겠냐며 대도시로 나가는 산업예비군밖에 더하겠

라 그만큼의 부담비를 더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5식구가 1천3백평에 농사를 짓는 농가는 의보법이 처음 시행될때 4천4백원에서 지난 1월에는 1만9천2백원으로 증가했지만, 소득은 증가되지 않아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체납되어 강제징입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은 13대 국회에 계류중인 데 이 법안은 지난 89년 3월 여야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 법이 국회의원 3분의 2찬성으로 제의 결의되어 시행된다면, 농민들의 보험료부담은 시금의 절반수준으로 인하된다.

현행 의보법의 잘못된 점은 정보인의 말로 압축될 수 있다. "1년 순소득 2백만원에 약2천평 농사짓는 우리같은 보험료가 2만5천원인데 수매액을 가진 대기업 회장집 보험료는 고작 4만원 이랍니다"

평화군축운동의 대중적 전개 역할 떠맡아



지난해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반핵평화운동의 대중적 전개 역할을 떠맡아



남북한 평화군축 정착을 위한 통일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은 이제 대중부문의 동으로 자리잡혀야 한다.

핵기지 반대하는 지역운동 결합 예정 순회강연 통해 범시민 운동 벌일 터

이 지역운동단체들이 결합되어 있다.

"반핵평화"는 창립에 앞서 지난 11일 평화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반도의 군축과 사회복지' 심포지엄을 주최하기도 했다.

"80년대 이후 부쩍 높아진 환경·핵문제에 관한 관심과 남북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통일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은 선도적 투쟁이 아닌 대중부문의 동으로 자리잡혀야 한다"는 조인숙사무국장은 '반핵평화'의 위상에 대해 "평화운동의 이론·정확성·실천을 수행하는 부분운동조직이라고 밝혔다.

과거 군축문제를 일방에 끼이기 조차 어려웠던 사회적 분위기에 비하면 지금의 정세는 미국이나 집권 세력 스스로 단계적 미군감축을 떠맡고 있듯이 군축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허구적인 군축안을 폭로해내는 선도적 투쟁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반핵평화'에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선언, 핵무기 배치상향과 군사전력 정보공개 요구, 핵기지 철폐·평화협정 체결정기, 핵발전소 신규 건설반대 등을 주요사업과제로 세우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운동은 미국과 집권세력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한때 어떻게 대중성을 확보하느냐가 그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이에 '반핵평화'는 당면과제로서 핵기지, 핵발전소 반대를 위한 지역연대사업의 활성화를 설정해놓았다.

"지역순회강연을 통해 미군기

지, 핵발전소 주민들에게 핵무기의 존재를 알리고, 비핵지대화를 관철시킬 수 있는 범시민운동을 벌여나 가겠습니다.

또한 핵무기철폐문제에 있어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는 원폭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핵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라며 조인숙 사무국장은 반핵평화운동의 대중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말한다.

이 땅에 핵무기, 미군기지가 있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더구나 허구적인 미군철수와 함께 증강되는 남한의 군비확산은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

이 땅 민중의 생존을 위하여, 남북한민의 극복을 위하여 평화·군축운동을 대중적으로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장)

추경저량수매등 농촌생존권 요구 준비

저곡가 정책은 수입개방 사전준비 의보법 개정으로 균등한 의료혜택 보장돼야

첫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앞두고 UR협상관철을 위해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쌀 수매정책을 축소하여 쌀 탈농현상을 가속화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92년 2월 국회의원 총 선거를 앞두고 농민을 희유하기 위한 정책입안 가능할지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농사를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농기때문이라고

라고 말한다.

또한, UR농업교섭이 타결되면 개방은 접어들고서라도 국내 농업 보조금까지 삭감·철폐하는 것은 소규모 농업이 주류를 이루는 국내 농업이 해체되고 '농자전하지대본'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현행 관세율을 유지한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 관세 85.6%, 마늘 61%, 고추 51%에 달하는 가격격차가 예상되고 이로인해 관세 50%, 고추 30%, 마늘 40%등의 축소 생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8백만 농민이 정부의 수입 개방정책과 저곡가 정책에 반대하며 전농의 깃발아래 추곡저량수매와 국민의료보험법 실시를 요구하며 광주시에서 모이다. 원천봉쇄만을 주장하지 말고 '민생은 천심'이라는 진리를 되새기며 어떠한 정책이 진정한 농민을 위한, 이 땅 민중들을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차동경 기자)

농민들의 추곡저량수매요구는 해방이후부터 이중곡가제를 실시해왔던 쌀 수매정책을 축소하여 쌀 탈농현상을 가속화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92년 2월 국회의원 총 선거를 앞두고 농민을 희유하기 위한 정책입안 가능할지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농사를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농기때문이라고

라고 말한다.

또한, UR농업교섭이 타결되면 개방은 접어들고서라도 국내 농업 보조금까지 삭감·철폐하는 것은 소규모 농업이 주류를 이루는 국내 농업이 해체되고 '농자전하지대본'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전국 8백만 농민이 정부의 수입 개방정책과 저곡가 정책에 반대하며 전농의 깃발아래 추곡저량수매와 국민의료보험법 실시를 요구하며 광주시에서 모이다. 원천봉쇄만을 주장하지 말고 '민생은 천심'이라는 진리를 되새기며 어떠한 정책이 진정한 농민을 위한, 이 땅 민중들을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차동경 기자)

언론사 주무르는 안기부 대변인

북한정보 독점하는 '내외통신'을 해부한다

"북한은 지난 1월24일 법민측대의 남북추진본부 상임위원인 이창복씨를 법민측 간부를 국보법위안 혐의로 구속, 수배한 것에 대해 '과소적 만행'이라고 매도전환하는가 하면 송갑석 전대외부장과의 정경환이 언급, '용납못할 반민주적 반외적 범죄행위라 비난했다.'"

최근 몇년전부터 통일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고 그 언론사에서 이에 부응하여 북한 전담부서를 두고 북한 소식만을 전할, 북한소식을 기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언론사의 대북관련보도는 유신, 5공시대의 다름없이 남북 체제의 우월성, 일방적인 비방, 냉정론의 전파가 수반되는 근거지로서 되어 있는 내외통신을 들을 수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취재가 불가능한 언론사는 북한소식보도의 90%를 내외통신에 의존할 수



북한기사 90% 안기부검열 거쳐 대북정보의 정부 독점 철폐돼야

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북한취재를 계획했다 하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영희교수가 구속되었던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현재 모든 언론사의 북한 취재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서 북한관련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인가?

정부의 '남북대화추진위원회'가 언론에 적용, 오직 단일화된 기사수용의 근거지로서 되어 있는 내외통신을 들을 수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취재가 불가능한 언론사는 북한소식보도의 90%를 내외통신에 의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허구적인 군축안을 폭로해내는 선도적 투쟁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반핵평화'에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선언, 핵무기 배치상향과 군사전력 정보공개 요구, 핵기지 철폐·평화협정 체결정기, 핵발전소 신규 건설반대 등을 주요사업과제로 세우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운동은 미국과 집권세력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한때 어떻게 대중성을 확보하느냐가 그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이에 '반핵평화'는 당면과제로서 핵기지, 핵발전소 반대를 위한 지역연대사업의 활성화를 설정해놓았다.

"지역순회강연을 통해 미군기

지, 핵발전소 주민들에게 핵무기의 존재를 알리고, 비핵지대화를 관철시킬 수 있는 범시민운동을 벌여나 가겠습니다.

또한 핵무기철폐문제에 있어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는 원폭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핵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라며 조인숙 사무국장은 반핵평화운동의 대중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말한다.

이 땅에 핵무기, 미군기지가 있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더구나 허구적인 미군철수와 함께 증강되는 남한의 군비확산은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

이 땅 민중의 생존을 위하여, 남북한민의 극복을 위하여 평화·군축운동을 대중적으로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장)

이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새로운 미래를 추구해 나갈 친취적 기성, 시대의 책임정신, 신선한 사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쳐난 대학생활을 시작할 때 밝고 건강한 대학의 승격을 담아가는 캠퍼스저널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학 학술·시사·문화·취업·유행·종합 정보 교양지

캠퍼스저널

CAMPUS JOURNAL

(주) 한국 U.M.I./ 한국대학신문회사
Korea University Media Institution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동 314호 301호
전화: 02-332-7722 FAX: 332-8029

3

(2·3합본호)

구독안내: 323-7722 값: 3500원

소련·동구 사회주의에서
순수성 지킨 동독교회 정철범

이문옥씨가 대학인에게 주는 글

아르바이트 현장
개척자 정신으로 소련에 도전한다 안화원

제만전쟁의 역사적 배경

아랍 민족주의와 유대 시온주의 유경원

전쟁에 임하는 미국의 의도 허만호

이라크 속셈, 아랍의 통합인가 분열인가 한희덕

광고 대행사

광고산업의 현주소와 채용현황 / 매체특성에 따른 광고의 종류 / 이경희

광고, 다양한 전문직종이 만든 협동의 꽃 / 광고체결기 / 천화성

광고교육원, 광고대상 박현진 / 광고인의 광고 철학 / 조봉구

대학의 문을 여는 젊은이들에게

역사발전이 등돌리지 않는 태도 / 유인호 / 문화의 자의식과 문화산업 / 노동은 신입생에 권하는 교양도서 / 졸업생이 후배에게 보내는 편지

필기예의 대학들

이영민의 시네마 에세이 '악한 자여 총을 들어라'

인진포의 POP리얼리즘, POP아티스트

'팝팝팝/팝팝팝'

래계를 통해 육인의 인간정신을 일깨운 팝 팝의 부형과 삼, 그리고 영혼의 음악

대학의 현황과 진로

현실속의 관념 대학생소설의 포리 구모용

6개의 해적교수들 김동훈

사회과학일련도 말의 변화로색하는 학회 이영원

'자민통'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심층 해부

한국은 핵 국가를 대국이 되려는가

대학가 패션/시사용어/컴퓨터 이야기 / 문화가 반사경/강의실 밖의 우리선생님 / 여성학적 시각에서 본 한국여성

본지 모니터링 업서를 통해 원하시는 본지는 언론사 '90' 가을중세 시험문제집을 보내드립니다

분교정책 철폐는 자주적 부총장 선출부터

경주캠퍼스 부총장 선출에 대하여

- ... 경주캠퍼스 부총장 선출이 게...○
- ... 속지연되고 있지만, 등록금 협상...○
- ... 에 관심이 쏠린 온방골 학우들은...○
- ... 대자보를 통해 교수총회, 대외위...○
- ... 회 직후들의 시기마다 전해지는...○
- ... 부총장선출 과정을 읽어 보았을...○
- ... 것이다.
- ... 그런 이유로 이 들에서는 현재...○
- ... 까지 진행된 부총장 선출과정과...○
- ... 진정 경주캠퍼스를 위한 부총장...○
- ... 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

학기의 1/3을 앞두고 아직도 우리 학교는 학생·재단이 합의한 상태의 등록금이 책정되지 못한 학사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경주캠퍼스에서는 등록금문제와 함께 경주캠퍼스의 대표이자 행정 수반인 부총장 선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맞서 현재까지 아무런 결의도 보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경주캠퍼스 부총장선출이 3차회의에 의해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짚어 봄으로써 올바른 부총장 선출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수·학생·직원 3자가 합의한 상태에서 경주를 대표하는 부총장후보를 선출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총장선출을 규정하는 경주캠퍼스 전체 교수회에서 부총장 후보 2인을 선출, 총장에 추천하면 총장이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지난 89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경주캠퍼스 초대 직선부총장에 김형수(국문학) 교수가 지난 89년 2월 선출됐다.

그러나 경주캠퍼스의 자주성이 구현되지 못한 상태의 직선 부총장이 지난해 총장선거가 책임하는 동안 재단에서 임명한 부총장 직무 대행체제로 계속되어 왔다.

올 3월 민병천 총장의 취임과 더불어 경주캠퍼스 교수에서는 규정안에 의한 부총장직선선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민병천총장으로 부터 교수회 회장(김갑주·국사학)에게로 걸려온 한통의 전화로 경주캠퍼스 부총장 직선이 혼선을 빚게

결정도 보지 못한채 지난 12일 전체교수 총회로 안건을 넘겼다. 한편, 총학생회(회장=오유석·한외2)를 비롯한 각단체·자치기구에서는 지난 6일 교수대의원회 시 작전 회의장에 들어가 '민병천총장이 후보일때 경주캠퍼스 부총장 직선과 경주자주권확보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지금의 행동은 재단으로 책임을 전가할 뿐이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고 교수·학생·직원 3차회의에 의한 부총장 후보 1인 선출후 재단에서 1인 선임하는 안을 내세웠다.

이러한 12일 오후 5시 소강당 II(원효관 4층)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원형 부총장선출 규정안에 따라 직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거로 인해 교수간의 반목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총장 후보 2인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경주

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지난 89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경주캠퍼스 초대 직선부총장에 김형수(국문학) 교수가 지난 89년 2월 선출됐다.

그러나 경주캠퍼스의 자주성이 구현되지 못한 상태의 직선 부총장이 지난해 총장선거가 책임하는 동안 재단에서 임명한 부총장 직무 대행체제로 계속되어 왔다.

올 3월 민병천 총장의 취임과 더불어 경주캠퍼스 교수에서는 규정안에 의한 부총장직선선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민병천총장으로 부터 교수회 회장(김갑주·국사학)에게로 걸려온 한통의 전화로 경주캠퍼스 부총장 직선이 혼선을 빚게



◇지난 12일 교수대의원회 장소인 교수회실에서 학생들이 자주적 부총장 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수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경주캠퍼스 부총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생·직원 3차회의에 의한 부총장 직선에 앞서 사립학교법이 전면 철폐, 혹은 재단직 학교 정관개정 투쟁을 통한 직선제 의 사수로 올바른 인물을 선출해야

학생회측은 부총장 인물대안에 있어 첫째, 인맥파벌에 의하지 않고 경주캠퍼스의 자주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며 예교심을 가지고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분, 둘째 민주적이고 진보적으로 현재의 경 관유치교육, 제도교육으로부터 학 원을 보호하며 학원주의의 구조적

교수회에서 2인 선출후 총장이 선임 교수·학생이 선출하는 부총장 돼야

교수중 부총장을 선임하자는 의견, 부총장 선임에 대한 재단의 명확한 해명을 위해 총회를 연기하자는 의견 등이 맞섰으나 결국 아무런 결의도 보지 못한채 호지부지되고 말았다.

총회에서는 이날 같은 시간에 학생대표자회의를 소강당 I(원효관4)에서 열고 교수회의의 안전에 대한

할 것이다. 또한 직선제 시수와 더불어 함께 제기되는 것이 부총장 권한의 확대이다.

개교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분교정책은 서울캠퍼스에 대한 경주캠퍼스의 중추성을 심화시켰고 교수들을 서울로 가기전에 잠시 경주에 머무는 철새 교수로 전락시켰

인물을 만들 수 있는 분, 셋째 학 자적 양식을 지닌 분, 네째 경주캠퍼스 특수성에 맞는 분으로 경주캠퍼스의 고립성을 타파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자주성 확보를 위한 골격토대 즉, 예산권, 인사권 확보에 주력할 수 있는 분을 내세웠다.

또한 학생회측은 부총장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며 독자적 예산결정과 집행 및 인사권 확보를 주장했으며 나아가 1재단 2총장제도의 관 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캠퍼스 총장의 권한이 미약 하고 재단으로 학내의 결정권이 집중된 이상 1재단 2총장제가 관철될 지라도 현재 상황과 다를 것은 거의 없기에 사립학교법 철폐로 우리

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경주캠퍼스의 부총장이 단순히 총장을 보좌하는 역할만이라면 총 장·부총장의 진본에 의해 혹은 선임되는 것이 오히려 일의 처리에 있어 원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주캠퍼스의 부총장은 경주캠퍼스의 대표로써 경주캠퍼스내 재정·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는 경주캠퍼스 부총장 직선제와 함께 생략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현기자>

학내기획

1906년 명진학교로 출범해 금년으로 85주년을 맞이한 동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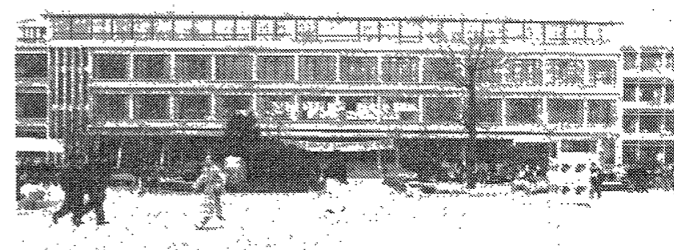
민족사학으로 60년대까지만 해도 전통과 전력을 과시했던 본교의 위상이 오늘날에 와서는 많이 퇴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쯤에서 필자는 학교발전의 물적토대를 지니고 있는 재단의 부실함으로 학교사실이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한 대학의 상징인 중앙도서관의 현실태와 문지집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편집자>

흔히 도서관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는 장서수, 연간 지원되는 예산 사설 제기지를 든다.

본교 도서관 장서수의 경우, 정기간행물을 제외하고도 총 40만권인 3백24권으로 여러 대학과 비교하면 평균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장서부족감은 도서관을 모두 배회하는 개가식이나 다름없다. 이는 장서부족을 이유로 일부도서관을 서고에 쌓아두는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서울 캠퍼스 도서관은 2억1천만원으로 도서관에 있어서 거의 경쟁적인 이대, 연대의 10억이 넘는 예산을 제외하고는 타대학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문제시 되는 것은 본



◇서울캠퍼스 도서관 건물(위)과 이화여대 도서관 건물(아래)전경.



이런 결과로 발생한 30년이 지난 낡은 콘크리트 구조, 보수가 힘든 창틀시설, 부족한 도서관예산 등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시급하고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은 열람실을 비롯해서 더이상 책을 쌓을 수 없다는 서고등의 공간문제이다. 또한 방대한 도서가 이미 적원들에 의해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도서관측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서관리의 전산화 및 도서관 신축을 꼽을 수 있다.

도서관리의 전산화란 도서관내 모든 도서를 중앙DATA실에서 룩

이런 불가능하고 교수회관으로의 확장도 교수회관의 이전문제, 그리고 확장에도 10년을 못가서 또다시 한계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때 최선의 해결책은 신축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학교당국은 도서관 신축 및 모든 건물의 증축을 남산개발정책에 의해 모두 백지화 시켰다. 학교당국은 이 정책과 남산보호를 위한 교수 및 시민들로 구성된 1백인위원회의 반대로 동국관증축을 포기해 버렸으며 이후 서울캠퍼스가 남산을 떠나지 않는 한 그 여

30년이 지나도록 개선방안 부재

공간, 장서부족으로 학생들 불만 재단·학교 당국의 세심한 관심 요구돼

교를 비롯한 여러 사립대의 도서관 예산편성이 83년 재정권 문교부에 산지점에 따른 것으로서 이지침은 그간 7년간 도시가격인상, 물가인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 책임한 문교부당국의 방치과 함께 매년 같은 수준의 예산에만 머무르겠다는 학교당국의 단일한 발상이

그러면 학생들의 장서수 부족감의 원인이 되고, 학교당국의 단일한 예산방정의 결과가 되는 현 중앙도서관의 시설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본교는 1961년 중앙도서관을 준공한 이래 85년에 4층으로 증축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30년이 지나도록 시설확장 및 개선대책에 무관심 해 왔다.

이는 80년대 들어서 건대, 이대 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사립대들이 경쟁적으로 실시한 현대적 도서관 신축에 비하면 현 재단이 얼마나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한다.

주요 사립대학 도서관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건물평수는 건대 7천 27평, 고대 7천5백64평, 이대 5천3백67평, 단대 5천3백70평에 비해 서울캠퍼스는 2천6백25평이다. 좌 석수는 건대 4천석, 고대 5천1백50 석이며 4천2백5석, 단대 3천2백22 석에 비해 2천1백82석이다.

특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교의 경우 낡은 건물구조상 도난방지시스템조차 설치해 불가능한데 대개 경우 건물신축시 전산화 작업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대의 경우 지난해 11백여억 원 을 들여 현대적 도서관 건물의 신축 과 더불어 도서관리의 전산화를 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나리에 비해서 도서관을 목록화시키는데 국어, 영어, 한자 등 여러가지 언어를 써야 하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복잡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에 성공 한 좋은 예로서 학생들 하나만으로도 자유로운 출입 및 대출이 가능하다. 도서관입비의 별도 예산을 제외 하 고도 중앙DATA실에서 도서의 수 서, 검색, 대출, 관리의 직업을 수행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만도 본교 도서관예산비와 같은 수준일 정도이다. 국립중앙 도서관은 각 대학별로 이러한 도서관리의 전산 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단일 본교에서 원형경우 프로그램개발에 의 협조를 약속한 상태라고 한다.

본교 중앙도서관의 마지막 문제 점이 위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역시 신축이다. 도서관측은 공간확대 방안으로 증축 및 교수회관으로의 확장을 검토 했다.

그러나 구조상 낡은 건물에 증축

한 건물의 신축방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건축지도에는 남산개발 계획은 그동안 남산의 뒷부분에 위치한 근기관, 인기부등을 이전하고 외관상의 녹지를 유지하는 취지이지만 입법화된 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본교 역시 남산개발계획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무리한 신축이 증축은 피해야 되겠지만 서울캠퍼스에 있는 수영장을 매입해서 그 자리를 도서관부지로 이용하는 등 낮은 지대를 활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다.

문제는 학교당국의 학교발전을 위한 의지와 성의인 것이다.

우리는 요즘 학교행정 및 운영을 학생등록금에만 의지하려고 학교당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고지서에서 학교당국의 무성의와 재단의 부 실함을 똑똑히 확인 하였다.

학교당국과 재단의 학교발전의지와 방안의 부재가 대학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정도에까지 이른 현실에서 학생들의 배움에 의 헌신 등에서 학생들의 배움에 목표중의 하나인 도서관 신축 투쟁 은 누가 봐도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다.

<송태영 기자>

사립학교법 철폐 정관개정 요구해야 2총장제, 사립학교법 시행중엔 무의미

되었다.

그 내용은 재단측에서 직선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재단이 선임하기를 원한다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함께 만약 교수회에서 직선으로 2명의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제3의 인 물을 선임할 수도 있다는 의사발표가 그것이다.

발표후 경주캠퍼스 교수회 대의원회에서는 임명권자인 재단의 의견이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회칙에 의거하여 형식적이나마 직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아무

전면거부의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지난 19일 부총장 선출을 안건으로 또다시 교수회 대의원회가 열렸으나 오늘(20일) 오후 교수 회총회로 선임이나 직선이나를 확실히 결정한다는 조건아래 교수회 총회를 개최하여 투표로 직선의 결 의가 모아지면 부총장 후보 2인을 선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재단의 한마디에 교수회가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기인한 것으로 모든 임명권이 재단으로 넘어가

다.

이렇듯 경주캠퍼스 부총장 선출 문제는 탈본교, 중추성 탈피와 학 원자주화 투쟁에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어야 하며 넓게는 자주화된 학원에서 사회로의 진출 즉, 진보 적 사회변혁에도 충실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부총장선거는 전과 정에서 경주캠퍼스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도적 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도과정 은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의 자유— 허시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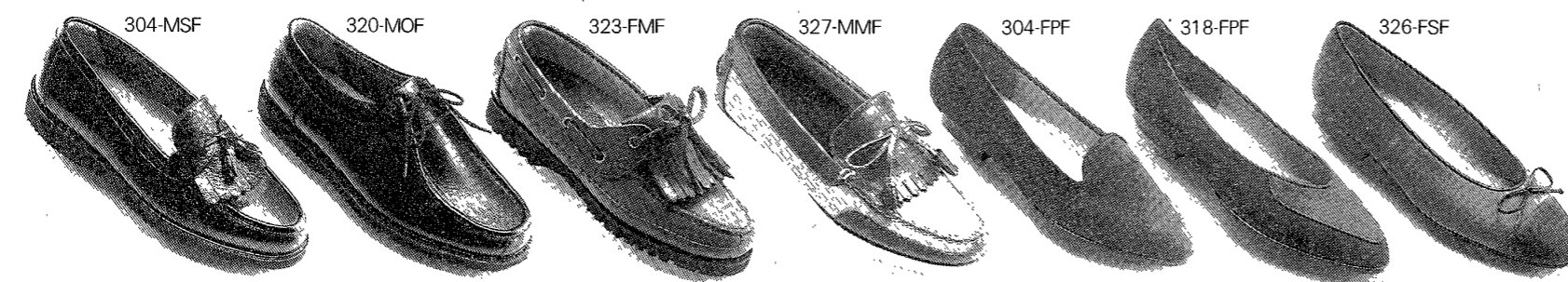
110년 전통, 세계적인 캐주얼 슈즈—

얼마든지 자유로와도 좋다. 무엇을 꿈꾸어도 좋다. 젊음이 가장 젊을 수 있는 도전의 캠퍼스— 발이 자유로운 허시파피와 함께 더욱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 보자.

- 신발수출 1위 업체 화승이 만드는 허시파피.
- 컴퍼트 커브(Comfort Curve)로 발굽에 이완할 정도로 가벼운 허시파피.
- 최고급 소재와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허시파피.
- 57개국 젊은이에게 사랑받는 세계적 브랜드 허시파피.

가까운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롯데백화점 잠실점, 신세계 동명프라자, 영동백화점, 현대백화점 부평점, 부산백화점, 제주 신한백화점



이정표를 세우며

지금껏 쓴 어느 글보다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펜을 잡아 본다. 평소 새로운 환경을 자주 대하고 적응하기를 원하는 성격과 반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들어온 신문사.



송 대영 기자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사는 길에 먼저 달려가 이정표를 세우는 일의 나의 참길이다.

학생들의 시위현장을 필름에 담을 때,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과 요구를 듣고 필름으로서 온통 약에 알릴 때의 보람은 나의 지난날 잃어버린 개인생활과 새벽까지의 기사마감에서 지친 몸을 씻어주곤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문에 들어와서 얻은 가장 큰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자아성찰의 기회이다. "제멋대로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나의 작년동안의 생활을 두고 하는 말 같다. 그러나 생활도 알고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듯

수습의 껍데기를 벗으며

이 기간 내가 살아온 환경을 분석하면 급함과 한탕치라식이 노력과 인내보다 우세했던 환경,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집단적 생활의 아름다움보다 지배적이었던 환경, 소수의 독점자들이 다수의 민중을 억압하는 환경들을 나는 많이 보아 왔다. 이러한 점들은 은연중 나의 사고 방식에 스며들어 작년의 생활에 그대로 표출된 것이다.

나같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오늘날 현사회의 부조리를 더욱 복돋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6개월간 신문사는 나에게 확실히 알려 주었다. 이렇듯 신문사는 나에게 온갖 허위의 껍질을 벗겨내고 참된 길로 나아가라고 하니 한때 나 자신은 이 땅에 태어난 자로서 진정한 참삶에 대해 방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방황도 오래가지고 곧 풀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지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비밀어린 환경, 보수된 사회구조를 아는 만큼 분노하고 분노한 만큼 투쟁해 나가는 것이 이 땅의 청년학도들의 현실적 사명이 아니겠는가.

사고의 전환



최창술 (공과대교수·선학)

물을 토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별, 나비가 없는 겨울에 피는 꽃만이 감내해야 되는 비애의 한 단면임이 틀림없었다.

나누가 가진 성질이란 불어리는 매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기능을 발휘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꽃이 꽃을 생산하지만 벌, 나비의 도움 없이는 채취할 수 없음을 확연한 사실이며, 세상의 일일이 제이무리 생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수컷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그 신비스러운 기능도 발휘할 수 없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천체를 관측하여 목성의 위성을 비롯하여 많은 별을 발견한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역설하였으나 1616년 이 학설은 정식으로 금지되어 버리고 만다. 당시 사람들은 천동설에 확신을 가지고

정론직필로 민중의 필봉되리라

이상의 날개

“젊은이여, 이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라는 지난 노래의 한 구절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추격추적한 가을비를 맞으며 시작된 6개월의 신문사 수습생활.



이경애 기자

오늘도 동양 곳곳을 뛰어 다닌다. 이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진정한 참세상으로 날기 위해서.

아무것도 그러하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무진장이나 애를 썼지만, 충족할 만큼 매겨지지 않은 나의 마음은 아직 '수습'이라는 자유로운 딱지를

매고 싶지 않다. 때로는 길고 지리하게 느껴졌던 날들이 지금은 보이기 싫은 아쉬움으로 나를 잡아끈다. 처음 취재 나갔을 때의 막막함, 부족한 취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감각한 밤하늘을 위로하고 이를 악물며 동국관까지 뛰어 내려갔던 일, 소복히 쌓인 하얀눈 위에서 동기와 하나됨을 위해 행군한 일, 난생 처음으로 '달광'에 들어가본 일등 이 들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일 뿐.

때로는 친구들과 격리되는 게 싫어, 마음대로 방황할 수 없는 게 싫어, 가뭄두는게 싫어 '나가자'하면 서도 나를 그대로 머물러 있게 유혹(?)한 것은 바로 신문사의 힘든 생활이었다.

'살'에 대해 신교시 때 마신 소주보다 더 쓴 고민을 했고, 아무 의심이 없던 집어하던 집회에서 불탄된 조국과 민중들의 아픔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

사실, 펼쳐버리고 일어나고 싶다. 지금까지 게을렀던 생활, '가자'라는 단어를 빌어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 채 다분히 머리를 굴렸던 날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시간들을 반성한다.

나의 열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온몸이 부르고 싶다. 이 땅의 아픈 현실에 맞서 모든 것을 부딪히겠다. 어느 선배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는 아직 20대이고, 젊다. 그리고, 해야만 할 일도 많다." 그래, 나의 할일을 위해 오늘도 동양 곳곳을 뛰어 다닌다. 이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진정한 참세상으로 날기 위해서.

나태하고, 지저분한 순간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기 위해 '소나기'나 퍼부어주면 한다.

(사법대 지리교육과)

고지탈환

신문사의 벽(?)이 너무나도 높게 보여 탈환해왔다는 각오로 문을 두드렸던 지난날.

따사롭고 포근한 가을햇살에 비친 신문사 창이 "정론직필" 글자가 주었던 멋진 영상, 신교식이 응급실로 둔갑된 기막힌 사진, 이 모든 것들이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습생활'을 이겨내는 초석이 되었을 것이다.

많은 생각들이 너러를 스친다. 내가 학생이지? 내 까짓게 기자

는 무슨기자? "애 해야만 되지"라



이상현 기자

조그맣고 연약한 빛이지만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을 밝게해줄 그날까지 결코 깨지지 않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리라.

는 생각이 파와 신문사 사이에서 들끓었던 지난날이었지만.

그러한 방황과 빈민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의 눈을 올바르게 비추려면, 마치 지나간 감동한 지옥에 한발 두발 숨어들은 햇살이 터져 세상을 밝혀주는 것과같이, 나는 그 빛에 감화되고 그 빛을 다른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주기 위한 아주 조그맣고 빛이 되고 말았지만.

나는 기쁘다! 눈먼 봉사가 광명을 되찾은 것처럼,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났을 때의 기쁨처럼, 유포피아가 어릴적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문앞쯤 와있진 않을까?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순간순간 만족하며 삶에 얽매었던 구차한 젊은 나이의 20평생, 차단되고 가리워진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왔던 내가 눈은 당당봉사와 무엇이 다르나!

하지만 참되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아닌 이상, 결코 늦지 않았다. 억압과 착취속에서 허덕이며 살고있는 수 많은 민중들, 먼저 가진 많은 열사 동지들, 지금도 해방될 그날을 위해 진군의 나팔소리를 멈추지않는 많은 동지들!

그들을 짓밟고 깨뜨리려는 배부른 돼지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작태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수수방관할 수 없다.

"왜 가만 있어야 되지?" 반문하고 싶다. 비록 나/ 조그맣고 연약한 빛이지만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을 밝게해줄 그날까지 결코 깨지지 않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리라.

(자연과학대 산업안전공학과)

올바른 문화운동을 위해

(1)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문화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문화에 대한 사회구조적 고찰과 올바른 방향의 문제 제기란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로 잡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의 토대위에 바른 문화적 실천을 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이부워 질 수 있다. 이 글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제기에 대한 지적과 간략하게 올바른 문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후 매체별 논의에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기대한다.

1. 문화란
문화라는 개념은 아주 광대하여 '요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힘든 일인 것이다. 여러가지 문헌을 살펴 보더라도 백여개에 가까운 다양한 정의를 내려 놓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내려 놓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에 필자는 간단하게 '同時代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정의를 해도 이러한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서구 문화, 동양 문화, 신흥 문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형태를 사회적으로 나타내는데 두 개의 갈래로 나누어 보면 현대 문명을 유지하려는 문화와 그것에 반대하여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는 운동문화가 있다. 그러면 후자의 운동문화에서 그 운동의 대상, 투쟁의 대상인 문화에 대해 알아보자.

2. 문화운동(투쟁)의 대상
첫번째로 상업적 대중문화가 있다. 이것은 대중들의 정서적 욕구를 마비시키고 개인주의 의식을 조장하며 퇴폐적 향락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실제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유희문화를 들 수 있다. 원래 놀이라는 말은 'recreation' 즉, 재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창조의 역할을 수행 해야 할 놀이의 한 형태인 스포츠는 상업화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소비적인 것으로써 '스포츠'라고 정의를 해도 이러한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서구 문화, 동양 문화, 신흥 문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형태를 사회적으로 나타내는데 두 개의 갈래로 나누어 보면 현대 문명을 유지하려는 문화와 그것에 반대하여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는 운동문화가 있다. 그러면 후자의 운동문화에서 그 운동의 대상, 투쟁의 대상인 문화에 대해 알아보자.

두번째로 사이버 고급문화가 있다. 이것은 소위 순수하고 서민문화라는 미명하에 대중문화, 서민문화를 공격하고 그 형식이 서구적이어서 제국주의에 침략과 약탈의 침범 역할을 하며 민족적 정서의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반민족적 문화이다. 이러한 의태 사이버 고급문화사조의 침투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것, 진정으로 서민적인 것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비주체적인 사상에 빠지게 되며 그와 더불어 남의 나라를 신봉하게 되는 시대주의 사상에 빠지게 된다. 이런으로 미국과 친미 매국노들의 가장 큰 지배메카로 기는 반북이데올로기와 그와 맞물려 들어오는 숨바꼭질사조가 되며 그들은 그것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세번째로 '판적 전통문화'가 있다. 그것은 그 시대 대중들의 민중적 삶의 내용을 교묘하게 배제시킨 채 비생애적인 지배층의 문화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사 민중적 형식을 보여 주더라도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민중·민중 문화의 건설 시급

글 쓰는 차례

1. 문화의 문제점 고찰
2. 문학
3. 노래
4. 풍물

5. 미술
6. 민속극
7. 총평

위적 대중화 목적과 대중들에게 끼치는 해악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두번째로 사이버 고급문화가 있다. 이것은 소위 순수하고 서민문화라는 미명하에 대중문화, 서민문화를 공격하고 그 형식이 서구적이어서 제국주의에 침략과 약탈의 침범 역할을 하며 민족적 정서의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반민족적 문화이다. 이러한 의태 사이버 고급문화사조의 침투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것, 진정으로 서민적인 것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비주체적인 사상에 빠지게 되며 그와 더불어 남의 나라를 신봉하게 되는 시대주의 사상에 빠지게 된다. 이런으로 미국과 친미 매국노들의 가장 큰 지배메카로 기는 반북이데올로기와 그와 맞물려 들어오는 숨바꼭질사조가 되며 그들은 그것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세번째로 '판적 전통문화'가 있다. 그것은 그 시대 대중들의 민중적 삶의 내용을 교묘하게 배제시킨 채 비생애적인 지배층의 문화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사 민중적 형식을 보여 주더라도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문화형태가 진정한 민중문화의 건설노력에 방해를 하기도 한다.

3. 마필급
짧은 글이었던 대학 지금의 그릇된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한것이다. 이러한 이해속에 우리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문화를 고민해 봐야 할것 같다. 먼저 왜곡된 우리의 문화를 민중적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의제서점사문학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 근거하여 민족적 형식에 민중적 내용을 담은 올바른 문화적 대안을 창조해 가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의제서점사문학에 대한 창조적수용을 해야 할 것이다.

간단하게 결론을 맺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인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이후에 다룰 세시대의 모습을 지향하여야 하며 그러한 지향의 모습은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속에 보여 질 수 있다. 민중주의의 민중자주문화건설, 민족적 형식에 민중적인 사상을 담은 문화 건설, 체 비생애적인 지배층의 문화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사 민중적 형식을 보여 주더라도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20살 여성을 위한 에띠앙 광고페이지 ②

※ 이따임은 20살 여성을 위한 에띠앙 브랜드 광고는 계속해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여자가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나이, 스무살 그 감각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에띠앙이 태어났습니다. 잔잔한 레이스와 신통한 색상이 스무살의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에띠앙. 누구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스무살이 되면 에띠앙과 만나세요.



- 에띠앙, 그녀는 누구인가?
- 이름 : 에띠앙 (Etienne)
 - 성별 : 여 (F)
 - 나이 : 18세 - 23세
 - 취미 : 음악감상, 기차여행
 - 음식 : 국수보다 라면을 더 좋아한다.
 - 성격 : 유머가 풍부하고, 밝히려는 성격이다.
 - 이미지 :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



다음호에 에띠앙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당첨자를 4월 중순경까지 각 대학신문에 게재
● 0명 이하에 에띠앙 장학금 (한학기 등록금) 을 수여함.

아름다운 '에띠앙' 이야기로 장학생을 찾습니다

사랑의 메트로폴리탄 (주) 신영에서 젊은층을 위해 만든 최첨단 패션·리조트의 새이름 에띠앙은 여대생들의 샹송 이미지 평가결과 자신들의 감각에 맞는 참신/신선/상류/정예 하다는 평을 받아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귀엽고 아름다우며, 국수보다 라면을 더 좋아하는 20살 여성 에띠앙 - 조용하고 감미로운 시간엔 음악감상을, 외로움을 느낄때 기차여행을 즐기면서 때로는 스스로를 길잡이 인생을 고민하는 에띠앙 이야기는 우리들 자신이며,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캠퍼스 안에서 겪었던 여러가지 이야기를 소재로한 감각적이면서도 유머감각이 풍부한 아름다운 에띠앙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 에띠앙이야기 첫번째 주제 : 모든 여자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에띠앙이야기는 통속적인 사랑이야기 보다는 여러분들 감각에 맞는 감동적이면서 약간의 유머가 가미된 에띠앙 이야기 같은 독특한 감각의 '사랑이야기' 란 주제로 초대하겠습니다.
- 응모지역 : 18-23세의 여자대학생
- 응모방법 : 200자 원고지 12매 내의 (우송시 만서시 필자의 사진 및 학교명, 학과, 학년,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 응모기간 : 4월 중순까지
- 보낼 곳 : 서울·구로구 가리봉동 345-54 (우) 152-020 (주) 신영광고부(문의 855-5011-5)

재단 발벗고 불교도 자원 끌어와야

학생요구안 모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재단전입금 확충 시급

등록금해정을 놓고 학교당국, 재단, 학생들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등록금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등록금부담(이하 등록)의 최후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등록금 '육탄'과 '타격'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등록금이 18%인상과 일방적 지원 후 학생들은 고지서만 남고 맞서고 있는데 지난16일 1차등록금마감이 끝났지만 63%의 저조한 등록률로 학교당국은 오는 23일까지 재등록을 받는다.

이제까지 협상과정에서 학생들은 무리한 등록금증액이나 인화차원의 등록에서 벗어나 학생요구안이 반영되는 예산편성 참여에 뜻을 모아 학교측에 제시해왔다.

또 교수·학생·직원들이 참여하는 등록금해정추진, 정당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교육과정 확보와 교육민주화를 등록금과제로 내걸었다.

지난 89년 등록금지출회조치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물가인상률과 수익자부담원칙을 근거로 두차례 인상으로 부족하고 있다.

사업대학의 수입구조가 재단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과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등록금부담을 낮추는 것은 국고보조금과 재단전입금의 확충과 연결된다. 사학재단과 국가가 책임자 할 대학재정과 국민교육을 수익자부담으로 교육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교육요소에 대한 기인한다 할 때 등록금은 돈에만 관련된 경제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등록금해정과정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던면 우선 1만학우들의 실질적 힘을 얻어내는 등록금이 되어야 한다. 총학생회에서 1인1요구안을 통해 등록금부담률의 확충을 제시했지만 지난15일 임시대표회의의 무산등 1만학우 의견결집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등록금 준비의 부족을 들수있다. 등록금 책정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실제적 내용을 내오는 데는 부족했고 협상주체도 여러번 교체, 일관성있는 등록금비가 되지않았다는 지적이다.

세계 등록금 연대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재단은 재정이 넉넉한 편이다. 워싱턴, 수시비리, 지자체등 정치사안이 연이었는데도 총학생회와 재단이 연이었는데도 총학생회와 재단이 연이었는데도 총학생회와 재단이 연이었는데도

이런 등록금협상에서 해결의 관공는 교수·학생·직원 3주체가 학교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이라고 할 때 상시적인 학교행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교학협의회, 대학발전위원회 등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전문덕이 있어 우리학교

교는 재단을 중심으로 등록, 법률관계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마련해 가야한다. 사업대미 총학생회인 우리학교는 중단의 지원없이 발전할 수 없는 계기를 재정사실고 등록금 결구 재단의 장기적 재원확보에 그 해결점이 있다. 중단에서 약속한 봉헌사 배려해본시 동대지원을 시급히 구체화하고 총동맹회 1백여기금모금운동도 계속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등록금 재단, 등록, 중단, 학교의 각주체가 재원확보 노력에 선행해야 하며 여기에 학생들의 주체적인 '동국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이상이 아님을 보여줄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보자표)



김은산군 금메달 국제 사격대회 공기총

본교 사격부 김은산(경영1)군이 U.I.T.월드컵 국제사격대회 공기총 1차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은산은 지난 12일 멕시코 네이트루 아레나시각장에서 총42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총6백점 만점에 5백60점을 얻어 금메달을 안았다. 현재 국제사격대회 후보상비군으로 있다.

고시장학생 60명 선발

고시지도위원회는 91년 고시장학생으로 사립고시준비생23명, 행정고시준비생31명, 외부고시준비생3명, 군법부내 1차 합격 1명, 행정고시 1차합격 1명 등 총 60명을 지난 18일 선발했다.

이들가운데 30명은 수업료 전액면제, 30명은 수업료 반액 면제에 선정된다.

△수업료전액면제자 △국민윤리3-김동원 △법학 2-이윤재, 정희석, 조양성, 조운행, 채희석 △법학3-권수철, 권세호, 박병권, 백남근, 박정우, 김용석, 박종진, 홍연환 △법학4-김종필, 이종성, 손승호, 김주용 △법학3-김하영 △법학4-김준원, 김병중, 박양규, 변해중, 이호중, 최요령 △법학3-김준원, 김병중, 박양규, 변해중, 이호중, 최요령 △법학4-김준원, 김병중, 박양규, 변해중, 이호중, 최요령 △법학3-김준원, 김병중, 박양규, 변해중, 이호중, 최요령 △법학4-김준원, 김병중, 박양규, 변해중, 이호중, 최요령

경주 종교동아리 등록싸고 논란 전학 이념 위배이유 매년 등록 불허

경주캠퍼스 동아리연합회(회장=조성우·한문4)의 신규·가동등록수를 앞두고 종교동아리의 신규·가동등록 문제가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

매년 신규·가동등록마다 "불교등록금 전액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지되던지, 혹은 C.C.C(대학생선교회), 로스쿨(천주교학생회), I.V.F(동성애) 등 신규·가동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연합회(회장=매물수·법학2)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등록금 문제가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지난1일 불교연합회에서는 동연사부실업에 종교동아리의 동아리 가입 반대 제재조치를 발한 바 있으며, 지난4일 오후5시에는 C.C.C 개강예배장소인 원효관(A)310강의실로 가서 불교연합회와 대화를 벌였다. 한편 동연측은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입장을 고수하겠다."

제9회 학생논문 현상모집

본사에서는 본지 창간 41주년 및 4·19 31주년 기념 '제9회 학생논문' 작품을 모집합니다. 정론적면과 독자에 피로써 향하여 민주주의를 한발자욱 전진시킨 숭고한 뜻을 새롭고 정경하고 되살리기 위한 이 방에서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지성을 기대합니다.

- ◇주제
 - 4·19의 비관적 재조명
 - 조선시대 호국불교를 통해 본 실천불교
 - 남북한 통일방안 고찰
 - UR협상과 제국주의
 - 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위상
 - 폐간정당 이후의 세력배치 재편
- ◇출제
 - 4·19의 비관적 재조명
 - 조선시대 호국불교를 통해 본 실천불교
 - 남북한 통일방안 고찰
 - UR협상과 제국주의
 - 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위상
 - 폐간정당 이후의 세력배치 재편
- ◇출제
 - 4·19의 비관적 재조명
 - 조선시대 호국불교를 통해 본 실천불교
 - 남북한 통일방안 고찰
 - UR협상과 제국주의
 - 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위상
 - 폐간정당 이후의 세력배치 재편

신입생·복학생 환영회 겸한 출범식 거행 노래패공연·공동체 놀이 통해 하나됨 확인

강강술래의 흥을 돋우며 신입생 환영회인 '배움에서 유익'으로 지난 13일 15일 까지 3일간 개최했다.

지난15일에 오후6시30분 만해관에서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3대 사범대학생회 출범식이 부학생회장 정민영(수학4)의 사회로 열렸다.

홍문패의 길놀이로 시작되는 출범식은 박선영 사범대학장, 정우식 총학생회장, 사범대학생회장의 인사말과 민족해방과 교육민주화를 주제로 한 사범대학생회장의 제언을 끝으로 출범식을 마치고, 이어 강강술래, 기차출동의 대동놀이를 끝으로 3일간의 환영회를 모두 마쳤다.

경주캠퍼스 제9대 한의대 학생회(회장=임병수·한의학2) 출범식이 어제(19일) 오후1시 한의학관 잔디밭에서 열렸다.

9대 학생회는 학생면학위원회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91년 사업의 구성점으로 삼아 교수승진문제, 전기수석임제제도

취업정보가 부족하다

졸업준비위원회(회장=박상구·야간생4)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지난1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4학년의 중심으로 총7백50부를 배포, 4백2부(회수율 50.25%)를 회수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인생을 성향은 사무, 전문연구직에 2백79명(70.28%), △졸업후 인식정도는 이렇다 할 않고 활동은 모른다 2백2명(50.88%) △졸업생 기업규모의 사용용도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 학교에 기증하는 것이 좋다 1백62명(43.55%) △취업투쟁의 내용은 기업체 예상

취업정보가 부족하다

문제를 본다 1백59명(40.87%) △취업정보지에 실어야 할 내용은 업종, 직종별 직무내용 및 직업조건, 임금수준, 직종등이다. 2백69명(59.5%) △학교발행 취업대체의 신뢰도는 별다른 것이 없으므로 그냥 본다 2백30명(63.89%),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간계층에 속한다 2백63명(72.27%) △취업후에 취업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 3백19명(83.73%) △졸업생의 민중운동의 활동에 대한 인식은 전혀 알고있지 않다 2백2명(61.96%) △졸업생과 민중의 정대모습에 대해서 양측을 하나로 통일시킨다 2백43명(72.97%)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준-위에 대한 건의 사항은 취업정보의 구체화, 앨범의 질적향상, 힘있는 졸업위 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언론탄압 노골화

대학신문에 대한 탄압이 또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주간교수의 신문제작에 대한 개입이 커지며 평지자, 성신여대등 서울 6개대학신문을 중심으로 공동기자단이 구성되고 호외제작과 타사지자·방문투쟁등으로 서울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회 차원에서 강력히 맞서고 있다.

평지자신문사의 경우, 작년 11월6일(515)자 장간기념회보에 '해방'이란 단어가 운동정함을 띠었다는 이유로 간섭을 하면서 학생기자의 편집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평지자신문사 기자들은 제작거부를 결의하고 주간교수연구실과 교무처장실에

한의대 교수 임용 '진통'

한의대 尹用甲학과장(방재학)의 2명의 교수가 지난달 2일 사임, 후임 교수임용에 있어 한의대학생(회장=임용수·한의학2)과 文典典교수(한의학학)와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교수임용은 한의사진출과 동의대병원장 부인의 사유로 사표를 낸 교수자리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15일 학생측은 한의대 학생실에서 교수대표2인과 면

신입생·복학생 환영회 겸한 출범식 거행 노래패공연·공동체 놀이 통해 하나됨 확인

강강술래의 흥을 돋우며 신입생 환영회인 '배움에서 유익'으로 지난 13일 15일 까지 3일간 개최했다.

지난15일에 오후6시30분 만해관에서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3대 사범대학생회 출범식이 부학생회장 정민영(수학4)의 사회로 열렸다.

홍문패의 길놀이로 시작되는 출범식은 박선영 사범대학장, 정우식 총학생회장, 사범대학생회장의 인사말과 민족해방과 교육민주화를 주제로 한 사범대학생회장의 제언을 끝으로 출범식을 마치고, 이어 강강술래, 기차출동의 대동놀이를 끝으로 3일간의 환영회를 모두 마쳤다.

경주캠퍼스 제9대 한의대 학생회(회장=임병수·한의학2) 출범식이 어제(19일) 오후1시 한의학관 잔디밭에서 열렸다.

9대 학생회는 학생면학위원회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91년 사업의 구성점으로 삼아 교수승진문제, 전기수석임제제도

한의대 교수 임용 '진통'

한의대 尹用甲학과장(방재학)의 2명의 교수가 지난달 2일 사임, 후임 교수임용에 있어 한의대학생(회장=임용수·한의학2)과 文典典교수(한의학학)와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교수임용은 한의사진출과 동의대병원장 부인의 사유로 사표를 낸 교수자리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15일 학생측은 한의대 학생실에서 교수대표2인과 면

한의대 교수 임용 '진통'

한의대 尹用甲학과장(방재학)의 2명의 교수가 지난달 2일 사임, 후임 교수임용에 있어 한의대학생(회장=임용수·한의학2)과 文典典교수(한의학학)와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교수임용은 한의사진출과 동의대병원장 부인의 사유로 사표를 낸 교수자리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15일 학생측은 한의대 학생실에서 교수대표2인과 면

인간과 호흡하는 첨단기술

제11회 삼성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경진대회

한국 컴퓨터업계의 '떠오르는 태양'을 찾습니다.

입제 1위의 상용컴퓨터가 국내 최대규모의 컴퓨터대전 제11회 삼성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인제개발 및 상용, 컴퓨터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총 1억5천만원 규모의 장학금과 부상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내 컴퓨터 산업을 선도해가는 상용과 함께 향진의 광안인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 컴퓨터 배양을 위한 대학에 삼성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경진대회를 참가하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체신부공인 전자과에서시험기관

소프트웨어 공모전

- 참가부문: 주, 고등부, 대학(전문대, 대학원), 인연부
- 종목부문: 기초 S/W, S/W(컴퓨터, 인공지능, 응용 S/W, 교육용 S/W)
- 대회일정
 - 신청서 접수: 3/18-3/30 (지방영양소, 전문대, 협력대학)
 - 오선제 및 사용평가: 4/22-5/2 (전문대, 지방영양소)
 - 오선제: 5/27 (중앙일보, 개명부)
 - 오선제 및 시상: 6/2 (중앙일보, 개명부)
 - 사용시스템: 16비트 이상 PC환경 (주변기기 사용가능)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 참가부문: 주, 고등부, 대학(전문대, 대학원), 인연부
- 종목부문: 기초 S/W, S/W(컴퓨터, 인공지능, 응용 S/W, 교육용 S/W)
- 대회일정
 - 신청서 접수: 3/18-3/30 (전문대, 지방영양소)
 - 오선제 및 사용평가: 4/22-5/2 (전문대, 지방영양소)
 - 오선제: 5/27 (중앙일보, 개명부)
 - 오선제 및 시상: 6/2 (중앙일보, 개명부)
 - 사용시스템: 16비트 이상 PC환경 (주변기기 사용가능)

국내 최대 1억5천만원 규모의 장학금과 부상

순위	대상	장학금	부상금	기타
1위	장학금 100만원	장학금 500만원	장학금 100만원	장학금 300만원
2위	장학금 200만원	장학금 200만원	장학금 200만원	장학금 200만원
3위	장학금 300만원	장학금 300만원	장학금 300만원	장학금 300만원
4위	장학금 400만원	장학금 400만원	장학금 400만원	장학금 400만원
5위	장학금 500만원	장학금 500만원	장학금 500만원	장학금 500만원

삼성컴퓨터 센터

삼성컴퓨터 센터는 전국 각지에 분점되어 있으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삼성컴퓨터

철학과 황교수 강의여부 불투명

“학자투 와해음모 승복할 수 없다”

철학과 학생회 서명작업-강의사수등 결의

재단의 책임유보가 결정된 상태에서 현재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황필호(철학)교수가 지난 19일 시간강사서투 신고를 거부함으로써 황교수의 강의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책임 유보에 처한 철학과 황필호교수는 지난 19일 오후 7시 사법대 철학강의를 하고 있다.

‘미술사’학술세미나

예술대학 주최, 미술학과 후원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관한 학술세미나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L101)에서 열린다. 80년대 격변기 미술, 현장

이전 시간강사 신고 통보에 고 있다. 이와관련 철학과학생회는 지난 19일 임시비상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다양관 식당 학생직영화 이뤄져

다양관 식당이 지난 18일부터 학생직영화가 됨으로써 두달여에 걸친 식당직영화싸움이 일단락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게 됐다. 현재 동국관학생식당도 교수·학생·직원 3주체로 복지위원회를 구성할때까지 학교직영화로 일단 운영된다.

박물관 올해사업 발표

본교 박물관(관장=문명대·미술학)은 실로드로 학술조사, 불교박물관 대학개설, 유물전시 등 3대사업을 중심으로 91년 중점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박물관에 따르면 조사연구사업으로는 불교문화 유적조사단과 함께 실로드로 학술조사연구와 실로드로전, 특별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주 대의원 등록

경주캠퍼스 총대의원회(의장=문성훈·회계3)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총 1백26명의 대의원 등록 89명의 대의원 등록을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국적 변경’은 탈락사수가 될수 없다며 재단측의 저의를 밝힌것을 촉구했다.

또 학생들은 이번 황교수 책임유보에 대해 학자투에 대한 재단의 와해음모이며 평교협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하는 한편, 교수와 학생을 분열시키려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철학과학생들은 책임유보의 부당성을 폭로키 위한 서명작업과 황교수강의사수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 재단사무처장 강자우 스님은 “황교수는 사무적인 착오로 유보될 수 밖에 없었다”며 “시간강사로 임용하는 문제는 보고 받은적이없고 책임유보에서 보류된 후 학교를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단입장을 표명했다.

수서 규탄 본교생 2백명 참가

김도일군 화염병 소지로 구속

‘수서비리’은폐정권 규탄 국민대회가 지난16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학생·시민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본교생 2백여명은 오후 12시30분 학생회관 앞에서 사건의대회를 갖고 단위별 결의를 다진뒤 서충현 소속 대학생 등에서 동원화장, 부회장 및 오후 3시30분경 서울역입구와 남대문사이 도로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근하는 시위대를 향해 남대문경찰서측은 M-16 공포6발

을 쏘았으며, 시위대는 최루탄을 앞세운 경찰에 의해 30여분만에 해산했다. 이어 오후 5시30분쯤 동대문시장 주변에 다시 모여든 시위대는 산발적인 시위를 가졌다. 이에 대응, 경찰은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 최루탄과 권총 광포55발을 위협 사격함으로써 시민과 학생들로부터 폭력적인 공격력 남용이라는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날 시위과정에서 본교 농과대 학생회장 류기우(농학4)군을 비롯한 10여명이 연행되

동연 대표자회의 개최

사업기조 발표·집행부인준 안건

동아리연합회(회장=최성순·경계4)는 집행부인준, 상반기 사업 심의·확정등을 안건으로 오는 22일 오후 5시 학원관 소강당에서 동연회장, 부회장 및 61개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된 대표자회의를 갖는다. 제7대 동연 집행부로는 △총무부장=한문석(수학3) △학

학사보고회 열려

서울캠퍼스 ‘91년학사보고회’가 민병천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19일)와 오늘(20일) 양일간 동국관(L101)에서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각대학별로 참여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민총장과 교수의 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됐다.

아르바이트 집계

신청자수 71% 앞선

학생처는 90년 2학기 아르바이트 통계 상황을 지난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0년 8월 20일부터 91년 2월28일까지의 아르바이트 학생수는 신청자 2천8백15명(남자1천9백71명, 여자8백44명)중 1천9백97명(남자 1천4백32명, 여자5백65명)이 일한데 희망자중 71%의 일선수를 보였다. 1개월미만의 단기아르바이트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에서 남학생은 방학기간, 시험기간을 가장 선호했고, 여학생은 사후보조원, 거리서비스, 요가실습실, 불교대 세미나실, 인철학과화도임동 소모임 활동화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농생과 수업거부 계속

인철과와 연대 투쟁 모색

신규교수채용문제로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농생과는 오는 21일 있을 총학추진회 공청회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될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김도 교수 채용거부투쟁을 시작한 수업거부와 지난13일 비상총회에서 전면수업거부투쟁 결의안을 통과시킨 농생과 교수채용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인철과와 중영교과위원과의 연대

역경원참고 불대 사용

불교대학생회는 불교대내 역경원도서관(본관2층)의 학생회사용을 지난 13일 역경원으로부터 약속받음으로써 오는 4월30일부터 세미나실, 요가실 등으로 사용하게 됐다. 지난 89년부터 역경원측에서 고의 학생회사용을 요구해온 불교대학생회는 올해도 끈질긴 요구끝에 역경원의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이 공강은 신학과 요가실습실, 불교대 세미나실, 인철학과화도임동 소모임 활동화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교생실습신청

실습생 4백37명

교생실습학교배정이 학교차체교실로 비번지 두번째인 올해 4백37명의 신청자를 지난 19일 동서 81명과 학교교실 3백56명으로 전원이 교생실습에 나가기 했다. 다음달 1일부터 27일까지 있을 교생실습은 사법대 4학년 재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법대인은 2천9백61명, 비사법대인은 2천2백99명을 실습비로 지난4일부터 6일까지 사법대법학과 및 이부대 교과에서 접수했다.

대학원정부회장에

김병호·박상란조 당선

지난 14·15일양일간 실시된 제7대 대학원 정·부학생회장 선거결과 단독임우보한 김병호(정치·박사과정1학기), 박상란(국문·석사과정2학기)조의 당선이 확정됐다.

노조 단체협약 조정단계

임금협정-인사제도등 안건으로

제3대 직원노조는 임금협정과 단체협정을 앞두고 상무집행위원회의를 장운노조부위원장을 15일 노조사무실에서 가졌다. 이번 회의는 임금협정에 대한 인건으로 정액에 더 많은 중점을 둘 것을 원칙으로 장기근속수당과 자녀학자금 보조수당, 가족수당등 각종 제수당의 인상과 특별수당의 지급등에 관한 사전원칙을 논의했다. 단체협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충협약 부분인 32, 33, 34조항인 직급승진제도 개선과 기능직급제에 전환, 기능직 3등급 인사제도 전환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중부처의 재무야관계부분 분리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환경미화원 파업 돌입

공개입찰-임금인상등 요구

환경미화원은 명진개발을 제외한 공개입찰,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지난 18일 오전부터 작업중단을 결의, 현재 불상앞에서 3일째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계약만료된 명진개발의 3월 임시파기가 잠정합의된 상태에서 환경미화원은 3월이후의 임금인상, 조속한 공개입찰 등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한 계속 작업중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측과는 “작업을 계속 중단할 경우 환경미화원을 교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명진개발의 부정부리는 해결되지 못한 채 환경미화원과 학교측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총학을 비롯, 일부단체는 대차보통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파업을 지지했다.

재단 알레르기(?)

○“등록금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학내현안문제에 관한 학교내 학생대표 간담회가 지난18일 오후 열렸는데...”

예산안공개, 단대복지안을 요구한 학생회는 학교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들지 못하고, 다만 기획조정실장인 회하에 열람만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아 민주적 책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보여 주며, 그러나 간담회내 재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측이 직접 답사자가 아니라 서인재 ‘꿀벌’은 방어리’적이어서 사법학 교번에 의해 증폭된 재단과 위를 의식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갖게 해.

이에 회전부대자 한마디 “등록발전에 대한 소신이 없는 재단알레르기(?)는 영원할지 모를지...” 6공의 꿈

“꿀벌리”지자체...벌써부터 ‘물(?)뿌리’ 걱정

○“꿀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회선거가 꿈은 꿀 뿌리이다 뿌리내릴수 있는 흙이 없으면 더욱 안타까워. 낮은 경쟁률속에 진행되고 있는 지방 기초의회선거에서 친여보가 60%를 넘어서고 있고 합동연설에서조차 꿀벌리가 정착 할수 있는 시민의 참여가 적어 각계의 지자체에 대한 우려소리가 높다

○“에년의 등록금협상에 서 ‘돈반오’가자’란 학생들의 생각이 동국발전을 위한 학생회의 구체적 요구안

○“은방글에 신관 ‘보도 지침’이 지시되었다는데,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동아리 가두모집이 동연측에 의해 허가됐지만, 불교대 연합회 의 항의로 한 동아리가 풀려나고 있던 상황. 이때 / 취재하던 기자에게 달려온 한학자 “뚝바로 기사 쓰지않으면 알 아서해 /”라며 보도지침(?)을 남용 했다는데... 보도지침 좋아하던 5공이 쪼그라 졌다는걸 상기한다면, 그 무서움(?)말이 쉽게 나올런지? 사망조심, 차조심, 특히 ‘뚝(뚝)조심 /’이 필요 할때 임니다.

생활에 풍요를, 마음에 풍요를

한강에서 백두산까지

두산그룹 해외학술사찰단으로 중국에 다녀온 우리 선생님들의 소중한 체험들을 한데 모아 엮었습니다.

교사 해외학술사찰단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북경과 연변 용정을 둘러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오른 우리 선생님들의 흥분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체 가시기도 전에, 백두산이 지금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선생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다 부를 수 없었던 애국가를 백두산 위에서 다시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한국에 돌아가면 제자들에게 천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지난 45년이 우리 모두에게 단절과 그리움의 세월이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 세월동안 조금이라도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루 빨리 다시 하나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 두산그룹에서는 매년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고 교사해외학술사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두산그룹은 중국·소련 및 동구권에 거주하는 동료들에게 교내·외 유급 휴가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산권 해외여행을 통해 학생들은 두산그룹의 건강술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충무로 동로가 13번지 연경빌딩 (우편번호 110-124) ■ 전화번호: 763-8111

두산그룹 THE DOOSAN GROUP

- ... 편안한 것, 재미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요즘 세상 ...○
- ...에 사회의 그늘에 가려있는 이들의 교육을 위해 ...○
- ... 애쓰는 이들이 있다.
- ... 서울의 '신당 적십자 청소년 학교'와 경주 '향토 ...○
- ... 아화' 두곳, 사랑의 배움터를 찾아보았다.
- ... (편집자) ...○

"졸업한 학생이 결정고시에 합격하고 찾아와 즐거워 할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신당동 북적대는 중앙시장에 자리잡고, 공부와 함께 사랑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내는 신당 적십자 청소년 학교(교장=최익주, 70세)를 찾았다.

마침 찾아간 시간이 오후 8시로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저녁식사 준비를 하며 '따뜻' 소리가 무성해져 안되는 학생들이지만 우르르 둘러 나와 탁자주위에 둘러 앉아 하루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날이 었었다.

"무너진 것 같은 판자집에서 어두운 백열전구 아래 학생들의 까만 눈만 반짝이겠구나"라는 선입견이 부끄러울 정도로 밝은 분위기였다.

경제개발 계획으로 서울에서 서울로 물러나는 많은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지난 79년 7월 17일 개교한 신당 적십자 청소년 학교는 '장편사랑, 꾸준한 노력, 성실한 마음'을

교훈으로 하고있다.

12년동안 꾸준히 이어져온 본 '아화'는 현재 본교와 적십자 간호전문대학의 동아리 R.C.Y.(=Red Cross Youth)소속 학생들이 주축으로 되어있다.

신당 적십자 청소년 학교

학생들은 열여섯된 사춘기 꼬마부터 서른아홉 이주머니까지 다양하게 속해 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배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평생교육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나이 어린 소년들은 "누나 사친기에 필름 있어요? 사진한방 멋있어 찍어주세요"라며 장난기 섞인 웃음도 잃지 않는다.

남학생들의 대부분은 공장, 철강소에 다니거나 신문에달을 하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수업을 마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의 학생들.

수업후 대화로 서로간의 신뢰 쌓아 교사부족으로 충실한 수업 힘들어

여학생들은 분개공정에 다니면서 오후 6시30분까지 맞춰 오느라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

게다가 아주머니들은 시집살이 하느라 수업에 제대로 팔까지 받지 못한다. 아쉬운 마음으로 부랴부랴 짐을 챙겨 나간다.

"낮에 공장에서 있었던 힘든 일을 토로할때면 환경이 서로 달라 학생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라고 한 여학생은 말한다.

아학의 시간표는 중학교 과정과 같다. 국어, 영어, 수학, 비문학, 미술, H.R.C.A까지.

C.A.시간에는 기타반, 뜨개질반, 합창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하며, H.R.시간에는 주마다 교장선생님의 석회, 학급회의, 초청인사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현재 교사부족으로 인해 한 교사가 두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결정고시 날짜가 잡히면 10시에 수업이 끝난후 보충수업까지 한다.

낮에는 수업듣고 밤에는 아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느라 너무 힘들지 않느냐는 말에 "저희는 편찮은 편이죠. 학생들은 하루종일 일하고, 밤이면 열심히 공부하고 일요일도 소풍, 학예발표회, 체육대회, 백일장, 문학의 밤 등으로 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린 너무 편한거죠."라며 쓴웃음을 짓는다.

진입후 학생들의 상한 얼굴모습을 볼때나 여러시간을 가르치고 난후 선생님의 힘든 얼굴을 볼때 교사와 학생들 서로를 생각하게 되며, 학업을 느낀다고 한다.

10시에 수업이 끝난후 1학년 담임 백승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각각히 말하기를 시작으로 사랑하고 사와 학생들 서로를 생각하게 되며, 학업을 느낀다고 한다.

10시에 수업이 끝난후 1학년 담임 백승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각각히 말하기를 시작으로 사랑하고 사와 학생들 서로를 생각하게 되며, 학업을 느낀다고 한다.

한 적십자가 '인도주의'만을 내세워 타박이나 경멸당할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아학은 점점 침체의 길을 걷고있다.

배우지 못하면서 열의를 갖고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아학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에 못지않게 충분한 교사의 양성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경애 기자)

'추억여행' 공연

21일부터 24일까지

소극장 학전에서는 여행스케치, 16년차, 고관용이 참가하는 대중음악 '추억여행' 공연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21일은 4시30분)에 갖는다.

'남바' 합동공연

대학로극장, 극단가가

대학로극장에서는 극단 가가와 가장 낮은자들의 소의된 계층의 진솔한 목소리와 삶을 표현하고자 '남바'를 합동 공연한다.

·공연장소: 대학로극장
·공연시간: 평일-7시30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4시, 7시30분
·공연장소: 실험극장 전용극장(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공연문의: 765-4981 742-2662

우리주위의 '아학'을 찾아서

"요즘같이 편안한 것만 찾는 세상에 이렇게 힘든일을 누가 하려고 하나요. 그러나 학생들 도움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교사, 학생모집을 하고 있지만 학생수에 비해 교사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말을 맺는 김숙희(향토아학 간사)씨.

경주에 있는 '향토아학'은 세계평화교수협의회 부설로 전국 90여개의 향토아학중 하나로 지난 89년 5월 개학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한다.

주소가 경주시 노서동 16-27번지로 되어있는 이 썩렁한 건물 2층도 며칠전엔 이사했고, 전세집이 세상모르고 오르던 지난해에는 건물(교실)을 구입수가 없어서 통일교회 귀유관에서 4~5개월동안 더 부실하게 했다.

그러나 구한 이 건물도 '남북통일원 국민연합 경주지부'의 사무실을 야간수업에만 빌어쓰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도 잘하지 않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지만 한두명이라도 배우고 싶어 찾

함께하는 사랑 실천의 장

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솟는다"며 향토아학이 생김때부터 함께 생활해 오고 있는 김숙희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이 일을 시작했는데 주위의 도움이 큰 힘이 된다고 한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저씨에게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이 처음에는 쑥

로 편성되어 한명의 교사가 각각 2~3명씩 맡고 있다.

빌어쓰고 있는 사무실을 나눠 한 방에서 초등·중등·고등부가 함께 수업을 진행해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서로 위한다고.

학교운영금을 주위 여러사람의

교사가 거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학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 여름·겨울방학때는 타의로 쉬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봉사단체나 대학내 봉사 동아리와 함께 결합하면 이런 어려움이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요? 추진용이라고 한다.

경주 향토 아학

스러웠지만 이젠 공부할 때는 선생님 노릇하고 수업 마치고는 인생선배로 이것저것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며 '위하여 살자는 교훈'이 생활신조가 되었다는 예비교사도 있었다.

향토아학이 수업을 시작하는 때는 저녁 식사시간이 끝나는 오후 7시부터 버스가 끊기까 직전인 밤 10시30분경까지이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문맹부

방학중 캠프 열어 친숙도도 초·중·고, 맹아부까지 편성

앞에서도 말했듯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개인주의가 앞서 요즘은 야 학교사를 모집하는 일의 어려움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거의 매일 저녁 수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힘들고 비차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정통있는 학생들과 해야지 아쉬워 계속 운영금을 보내는 교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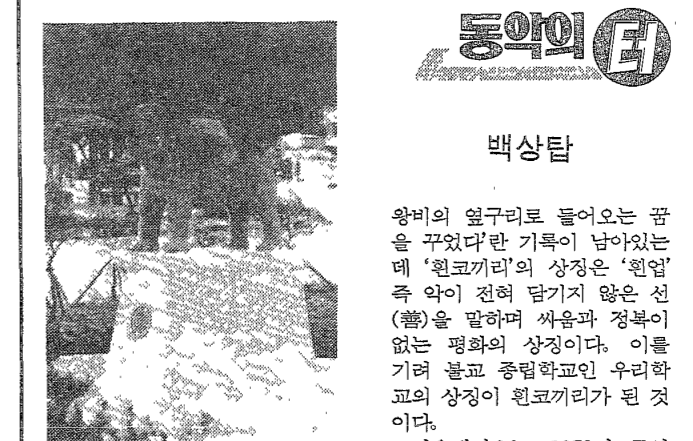
그리고 4월과 8월에 결정고시가

있는데 합격해서 수가 줄기도 하지만 불합격인데 의욕을 잃는 학생도 있어 이때문에 4월과 8월에 학생의 유동이 심하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향토아학을 이루는 사람들의 노력이 아학을 이끌어 가는 힘이 아닌가 본다.

운영비 마련을 위한 일일캠프를 작년엔 이어 준비하고 있고 방학중에는 교사·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인간적으로 친숙하고자 하는 캠프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어렵고 힘들어 거리는 일이지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주위에서 원하는데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정을 느끼고자 하는 한 향토아학은 발전해나갈 것이다. (이형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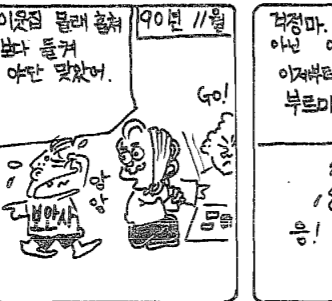


백상탑

왕비의 열거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라는 상상은 '원일' 즉 악이 전혀 담기지 않은 선(善)을 말하며 싸움과 정복이 없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를 기려 불교 종립학교인 우리학교의 상징이 원로기라가 된 것이다.

서울펜펜스는 1970년 졸업생에 의해 크기가상이 세워졌고 경주펜펜스는 상징물에 대한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어 경주펜펜스가 세워진지 12년째 긴 시간 2월에 완공되었다.

일일캠프 정체를 모아 우리의 표상인 백상탑을 세워 건학이념을 되새기는 동시에 8 일전 투회의 기상을 발드니 백상이여 우리와 더불어 대강 편견 없고 정이 열려서라'는 백상탑이란 힘의 의미를 새겨 단숨에 지나 치거나 기념사건 찍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백상탑이 교원과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이 진정한 우리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 (문화부)



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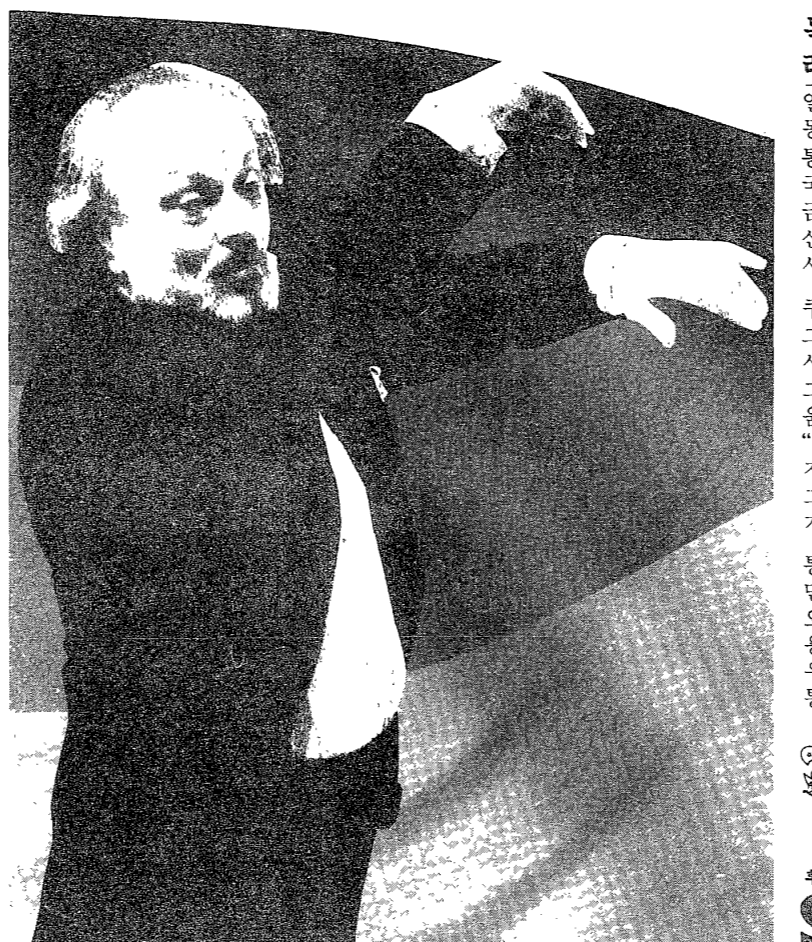
▲단체 신체의 의미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등장한다. 우적우적 철부지한 민중주의자였던 단체의 소실 주인공답게 이 '한놈'은 단군을 찾아가 문명도 없고 빈개를 쫓아 삼아 짐승의 목을 치는, 제나라 역사와 인물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되어 단군을 현실속에서 고민하고 꿈꾸었던 것을 소설속에서 통렬히 펼치고 있다. '한놈'은 민족과 민중을 위한 사랑만으로 역경을 헤쳐 나가면서 사천년 제일 대위인 윤지문 덕을 역사속의 위대한 인물과 접목하게 된다. 이들과의 대화와 접맥과 투쟁에서 '한놈'은 민족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위인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소설은 중단된다. ▲단체가 열려왔던 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한놈'은 고사하고 쓸만한 시대조차 없는 것 같다.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제도교육으로 '한놈'들의 싸이 잘리는 것이 첫번째 이유요, 비록 절름발이 '한놈'이나 제대로 크는데 도움을 준 인물의 부재가 그 두번째 이유이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앞에서 약속한이 두

'한놈'주의(主義)

번째 이유로 일어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후자는 강력하고 위대한 '독재자' 필요성의 논리를 펴기도 하나 중요한 것은 '민중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는 26일과 6월에는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상식적인 의미로 선거

한 지휘자의 용기, 그리고 독일의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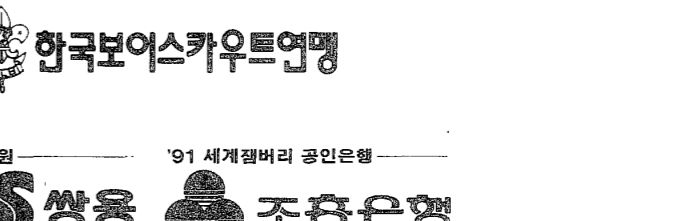


독일 통일의 기쁨이 된 라이프치히 집회의 주역, 쿠르트 마추르.

얼마전 1989년 10월 9일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통일에 대한 화산같은 열망과 국가권력을 필요로 한 보수세력이 대치중이었습니다. 급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듯한 감동의 현장에서 신념과 용기에 찬 설득으로 회화의 길을 마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쿠르트 마추르, 그는 정치인이 아닌, 시민의 신뢰를 받는 시립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있는 설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라이프치히 집회는 통일 독일 건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통일 축구, 남북 예술계... 민족의 한이 된 휴전선을 넘어 혼 혼한 소식들이 오기 시작하는 지금, 대립보다는 화해하는 용기가 진정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에 풀어야 할 민족의 숙원, 통일을 이룰 주역은 바로 젊은 당신입니다.



지구촌 청소년들의 우정과 보람의 한마당. 17회 세계잡리 '91. 8. 8~91. 8. 16까지 한국의 실막에서 열립니다.

●쿠르트 마추르 라이프치히 개빈트 하우스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 비올라 연주자 출신의 동독 출신 디마제르의 체코 대통령 하빌 등과 함께 동유럽 연주회에 기여한 예술인의 헌신입니다.

